

33. (사)8

**권혁수 (權赫秀)**

1962년 중국 길림성 반석에서 태어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비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 역임,  
현재 중국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교수  
중국근대대의관계사, 한중관계사 전공.  
『世紀大濶野』,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연구』, 『당대한국인문사회과학』(공편),  
『한국고유사상문화론』(공저) 등 저서·논문 다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권혁수 지음

2007년 12월 27일 초판 1쇄 발행

펴낸이 · 오일주  
펴낸곳 · 도서출판 해안  
등록번호 · 제22471호  
등록일자 · 1993년 7월 30일

☎ 121-83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26-26번지 102호  
전화 · 3141-3711 ~2 / 팩시밀리 · 3141-3710  
E-Mail [hyeanpub@hanmail.net](mailto:hyeanpub@hanmail.net)

ISBN 978 - 89 - 8494 - 327-8 93910

값 30,000원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타계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輓聯 하나 지어 보낸 것 외에 지금까지 한번도 추모의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늘 송구스럽게 생각된다. 다른 한 분은 일찍이 1991년부터 줄곧 저지를 한 가족처럼 감싸주고 돌봐주셨던 팔필을 연구하는 모임의 대표 柳永秀 선생인데 퇴직 후에도 한국 養蜂史 및 釀造史, 武藝史 관련연구를 그토록 열성적으로 진행해 오던 분이 금년 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밤늦게 국제전화로 하품을 전달받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다시 일어나 지어두었던 輓聯을 여기에 옮겨 놓으면서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빌어본다.

雄界精英, 踏遍青山東西洋, 哀哉 斯人已去;  
史壇奇士, 讀破萬卷古今書, 嗚呼 魂兮歸來.

세기를 넘어 벌써 15년이 넘는 친분을 잊지 않고 이 책의 출간을 애써 주신해 준 삼귀문화사의 김수철 사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수익 상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는 이 책의 출판을 선포 맡아주고 국경을 넘나드는 어려운 편집작업을 통해 좋은 책으로 만들어 준 도서출판 해안의 오일주 사장 및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7년 5월 24일 늦은 밤  
중국 長春의 三聲堂 書室에서 지음

## 목 차

### 머리말 5

#### 1866년의 병인양요에 대한 중국 청정부의 대응 17

1. 들어가는 말 17
2. 조선왕조의 對西洋 鎖國政策과 중국 청정부의 입장 18
3. 청정부의 불간섭정책과 병인양요의 勃發 23
4. 병인양요 및 청정부의 대응 32
5. 맺는 말 47

#### 1871년의 辛未洋擾와 중국 淸政府의 對應 연구 51

1. 들어가는 말 51
2.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 中美朝 3국의 외교교섭 53
3. 辛未洋擾 기간의 中美 교섭 60
4. 辛未洋擾 기간의 中朝 교섭 69
5. 맺는 말 75

####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비밀 외교체널

— 李鴻章-李裕元の 往復書信을 중심으로 — 79

1. 들어가는 말 79
2. 李裕元の 使淸과 두 가지 使命 80
3. 李鴻章-李裕元の 往復書信에 대한 구체적 내용 검토 93
4. 맺는 말 106

김옥균 암살사건과 청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109

- 1. 들어가는 말 109
- 2. 청정부가 본 갑신정변 이전의 김옥균 110
- 3. 갑신정변 기간의 청정부와 김옥균 118
- 4. 망명 중의 김옥균과 청정부 138
- 5. 김옥균 암살사건과 청정부 162
- 6. 맺는 말 181

김옥균과 중국-對中國認識을 中心으로 - 185

- 1. 들어가는 말 185
- 2. 甲申政變 이전의 대중국인식과 관계 186
- 3. 갑신정변 기간의 對중국관계 204
- 4. 망명기간의 대중국인식 222
- 5. 맺는 말 234

근대조선의 아시아협력 구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 김옥균의 三和主義 사상을 중심으로 - 239

- 1. 들어가는 말 239
- 2. 김옥균 三和主義 사상의 형성과정 242
- 3. 김옥균 三和主義 사상의 확립과 좌절 248
- 4. 맺는 말 254

『吳淸卿獻策論』을 통해 본 청정부의 對朝鮮 간섭정책 259

- 1. 들어가는 말 259
- 2. 吳大澂의 생애 260
- 3. 吳大澂의 派轉 및 주요활동 263
- 4. 『吳淸卿獻策論』의 내용 및 시료적 가치 282
- 5. 맺는 말 291

藏書閣 소장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 295

- 1. 들어가는 말 295
- 2. 『北洋衙門談』의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 297
- 3. 『北洋大臣衙門筆談』의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 304
- 4. 나가는 말 308

‘兩截體制’와 19세기 말 조선왕조의 대중국외교

- 초대 天津駐劄管理通商事務 南廷哲의 활동을 중심으로 - 311

- 1. 들어가는 말 311
- 2. 천진주처독리통상사무아문의 설립 및 기본제도 314
- 3. 역대 천진주처독리통상사무 및 기타 임직원 320
- 4. 초대 천진주처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의 주요활동 323
- 5. 맺는 말 331

러일전쟁과 중한관계의 변천(1904~1905) 335

- 1. 들어가는 말 335
- 2. 직접 침략을 받은 두 ‘종립국’ 336
- 3. 러일전쟁 기간의 중한 양국관계 346
- 4. 맺는 말 : 포츠머드 강화조약과 중한관계의 변천 355

한중 상호이해의 어제와 오늘 361

- 1. 들어가는 말 361
- 2. 19세기 말의 『조선책략』 파문 364
- 3. 20세기 초 『조선』을 둘러싼 논쟁 372
- 4. 21세기 초 고구려사 논쟁으로 본 한·중 두 나라 상호이해의 현실 380
- 5. 바람직한 상호인식과 미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계기 385

## 근대이래 中韓 양국의 상호인식

- 黃炎培의 『朝鮮』과 李始榮의 『感時漫語』를 중심으로 - 389

1. 들어가는 말 389
2. 黃炎培의 『朝鮮』을 통해 본 근대중국의 한국인식 390
3. 李始榮이 지적한 근대중국의 한국인식의 문제점 399
4. 결론을 대신하여 : 상호인식과 상호이해의 중요성 407

## 중국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하여 411

1. 서론 411
2. 1945년 이전의 연구상황 414
3. 1945년 이후의 연구상황 421
4. 결론을 대신하여 430

## 중국학자가 살펴본 조선왕조 대 중국인식의 변화과정

- 陳尙勝 의, 『朝鮮王朝(1392~1910)對華觀의 演變 :

『朝天錄』和『燕行錄』初探』을 읽고서 - 435

- 찾아보기 447
- 수록논문의 원 출전 463

## 1866년의 병인양요에 대한 중국 청정부의 대응

## 1. 들어가는 말

1866년의 병인양요는 한국역사상 최초로 서양열강과 대결한 전쟁사태로서 19세기 말의 한국에 대한 자본주의 열강세력의 침투와 침략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일찍부터 한국근대사 및 한불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고,<sup>1)</sup> 또한 1990년대 초부터 한불 두 나라 사이에 외교장각도서의 반환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sup>2)</sup>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불관계사의 시각에 의한 병인양요 연구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중 관계사의 시각에 의한 병인양요 연구는 지금까지 한중 두 나라 학계를 비롯하여 거의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인양요는 한중관계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인 조공관계체제와 서구자본주의 세력이 『砲艦政策(Gun-Boat Policy)』의 강력한 수단으로 주장하는 근대적 조약

1)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표적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두 책을 꼽을 수 있다.

韓國史研究協議會 編, 『韓佛修交100年史』, 동 협의회 발행, 1986; 韓國政治外交史學會 編, 『韓佛外交史 1886~1986』, 平民社, 1987.

2) 2000년 8월 25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로 “병인양요의 재조명과 외교장각도서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고, 李元淳, 張동하, 趙晄, 權熙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아시아 정세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나누어 볼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피살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sup>14)</sup>

2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후의 한중관계 그리고 한국근대사가 좀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역사에는 그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법이다. 누구의 말처럼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는 저 강물처럼 말없이 흘러가기만 하였다.

### 3. 20세기 초 『조선』을 둘러싼 논쟁

1927년 10월 근대중국 최초의 직업교육기관인 中華職業教育社の 주요 창시자이자 유명한 교육가, 사회활동가인 黃炎培(1878~1965)는 국민당정부의 체포령을 피해 당시 일본제국의 영토로 전락한 대련으로 피신해 있다가 한국여행을 다녀왔는데, 훗날 그는 이때의 한국여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sup>15)</sup>

나의 임무는 농촌교육과 경제를 고찰하는 것인데, 조선과 대만 그리고 인도의 경우 모두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특수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혹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동방의 여러 곳 즉 조선, 인도, 미얀마, 타이,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의 최근 정치 및 사회상황에 관한 중국어로 된 출판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득하니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 위의 여러 곳은 모두 오늘날 이른바 약소민족으로서 이른바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진정 그 민족들을 가여워

14) 권혁수, 『김옥균암살사건과 청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31집, 한양대학교, 1997 참조

15) 黃炎培, 『朝鮮』,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中華民國 18年(1929) 9月, 1~2쪽.

하면서 그 주의를 미워한다면 어찌 저들 민족이 그 주의 밑의 실상을 깊이 살펴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위의 여러 곳은 모두 우리 중국과 수백 년 또는 천 년 이상의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흥하였고 일부는 망하였으니 역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크게 연구해 볼 만하였음에도 어찌하여 그런 곳의 사실을 기록한 책이 한 권도 없단 말인가.

황염배는 처음부터 한국여행을 통해 당시 일본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의 현실상황에 관한 자세한 책자를 저술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미 10년 전인 1918년 7월에 한국을 최초로 여행하였고 이때 여행의 견문을 출간할 생각에 틈틈이 메모를 해두었지만 귀국하는 도중에 그 메모장을 분실했다고 하니, 일찍부터 한국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하튼 한 달 남짓한 2차 한국여행을 마친 뒤 귀국한 황염배는 여행견문과 한국에서 수집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한 한국관련 책자의 집필을 이듬해인 1928년 3월에 완성하였고, 1929년 9월에 당시 중국 최대 출판사인 上海 商務印書館에서 『朝鮮』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출간했는데, 본문 5장에 부록 1장까지 총 335쪽에 달하였다.

무려 28개의 도표와 27개의 삽화가 곁들여진 『조선』은 1920년대 후반 당시 식민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상황을 거의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어 근대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한국개설서로 손색이 없다. 황염배가 책 집필을 마친 지 두 달 뒤인 1928년 5월 일본군이 산둥성 濟南에서 3,9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학살한 濟南慘案을 일으켰던 바, 그는 책 서문에서 일본의 대륙침략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식민지 조선 현실이 중국에게 훌륭한 거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조선』은 식민지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소개를 통해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일제침략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려는 의도 자체는 물론 훌륭했지만, 그의 접근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 황염배의 한국어행은 거의 전적으로 일제 식민통치 당국의 배려하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전문인력을 보내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방과 식민통치기관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자세한 식민통치자료 및 관련서적들을 대량 기증해 주었고, 또한 이나바(稻葉岩吉) 등 일제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그의 韓國考察을 도왔다. 그러므로 그의 한국고찰이 식민지 한국의 실상과 전혀 다른 영풍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황염배는 일본 식민당국의 한국통치를 ‘善政’으로 주장하고, 결론으로 이미 일본과 동등의 고등교육권을 향유하게 된 한국인들은 모름지기 피 흘리는 무장투쟁보다 학문적 노력을 통해 어떤 강국도 감히 업신여길 수 없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약자로서 취할 수 있는 ‘光明大道’라고 호소함으로써(사실상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한민족의 항일구국투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따라서 일제 식민당국의 식민통치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된 이 책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족특성에 대한 내용에서 온갖 오류와 편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는 물론 일제 식민당국의 의도적인 왜곡과 소개의 영향도 있었지만 전통적인 중국중심적 시각의 영향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중국 최초의 가장 체계적인 한국개설서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온갖 오류와 편견으로 점철된 내용으로 가득 찬 사실 자체는 당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중국 주류사회의 엄청난 몰이해와 무지, 심지어 그릇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20세기 초 당시 한·중 두 나라의 상호 이해와 인식에 심각한 부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당시 상해임시정부의 중요 일원으로 중국에서 항일구국투쟁에 헌신한 李始榮이 우연히 어느 서점에서 책을 발견한 것은 출간 2년 뒤인 1933년이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싸워온 이시영은 황염배의 그릇된 한국관련 기술을 읽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었다.

중국사람들의 한국관에 부족한 점이 많고 자세하지 못한 것은 벌써 오래된 것인즉, 청나라 말로부터 한국의 사정에 관한 저술이 6, 7종이나 있었지만 어떤 것은 황당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어떤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사실에 어긋나거나 누락되어 별로 읽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 중에서 황씨가 쓴 것은 상당히 공력을 기울인 것이지만 역시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 대저 일본사람들의 저술을 참조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니 많으므로써 그 진실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사람이 볼 때 그 한 책의 내용은 일본사람을 대신하여宣傳하는 것에 불과함으로써 상당히 불만스러웠다.<sup>16)</sup>

이에 이시영은 분명히 붓을 들고 저술한 것이 『感時漫語－황염배의 한국사관을 논박함』이었다. 여기서 이시영은 먼저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중국사람의 시조로 알려진 요임금과 같은 시대의 임금이라고 역설하면서 배달민족의 기원, 기자의 평양과 고구려의 평양, 발해 및 고려, 한민족의 언어문자와 도교 등의 내용을 통해 한민족의 우수성과 한국역사의 오래됨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황염배의 『조선』에 나타난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중심의 한국사관에 의해 왜곡된 한민족

16) 성제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편, 『感時漫語(感黃炎培之韓史觀)』, 일조각, 1983.

1쪽. 그리고 이 책의 譯解本으로 『한민족은 위대하다』(한남, 2002)라는 책이 있다. 그러나 두 책 모두 漢文으로 된 原文을 한국어로 옮길 때 잘못 번역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인용한 관련 내용은 모두 필자가 새롭게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과 한국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이시영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다(歪史辨正)”는 취지하에 황염배의 『조선』에서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조목조목 논박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자의 封國, 한민족 문화의 유래, 일본의 神功皇后에 관한 이야기, 한국사람의 智德, 한국사람의 창조력, 한국 貨幣觀에 대하여, 排華感情을 촉발시킨 음모, 集會・結社에 관하여, 張良이 力士를 초빙한 것에 대한 考據, 伯夷의 首陽山, 대원군 행정

위와 같은 내용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국통사 또는 한국문화사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 것으로, 그 방대한 내용의 고증과 바로잡기 작업이 망명지 중국에서 참고문헌을 비롯한 최소한의 연구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최악의 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시영의 민족사랑과 나라사랑의 깊고 높음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이시영은 일제 식민당국의 안내외 도움으로 한국을 고찰한 황염배의 접근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19세기 말 한국근대사의 내막을 자세히 소개하고 아울러 역시 계국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가고 있는 근대중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1910년부터 장장 24년 동안의 중국 망명생활을 통해 쌓아온 자신의 중국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밝혀두었다.

경술년(1910) 겨울에 먼저 (중국의) 동북지방에 도착한 뒤 그 후 화북과 상해지방을 오가면서 벌써 24년이 되고 도시와 시골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발견된 곳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였고 위축된 분위기를 하나라도 보게 되면 가슴이 짝 메이는 듯하였다.<sup>17)</sup>

바로 중국과 중국사람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시영은 황염배 같은 중국의 주류층 인사들이 한국과 한국사람들을 너무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황염배 같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릇된 인식밖에 갖지 않은 것은 사실 중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그 점이 결국 20세기 초 중국이 쇠약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실과했다.<sup>18)</sup> 따라서 한·중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민족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한중 두 나라 상호이해의 부족 특히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몰이해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사실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 역시 임시정부의 주요 창시자로서 특히 중국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던 예관 신규식 선생 역시 1939년 중국에서 출간한 『韓國魂』에서 근대중국의 대학자인 董炳麟이 이른바 한사군이 결국 고조선의 일부 영토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당대 최고의 문호로 이름을 날린 梁啓超는 심지어 한국이 “國文이 없는 나라이였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황당한 결론을 내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야말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큰 나쁜 모욕이라고 분개하였다.<sup>19)</sup>

한편, 국민당정부 시절에는 줄곧 유명한 재야인사였고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총리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까지 맡았던 황염배의 『朝鮮』은 저자의 유명세에 힘입어 당시 중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20세

17) 『感時漫語(歐黃炎培之韓史觀)』, 93~94쪽.

18) 위의 책, 27쪽.

19) 申圭植, 『韓國魂』, 肥觀先生紀念會, 1955, 8쪽.

기 초 한국연구의 대표작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그러나 이시영의 책은 장장 반세기 후인 1982년에야 겨우 첫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이어서 2002년에 두 번째 역해본이 나오면서 겨우 언론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시영의 절실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황염배와 이시영 두 사람 사이에서 한·중 두 나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진지한 토론은 애당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토론을 통해 두 나라 국민들의 상호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애초부터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국민당정권이 줄곧 상해임시정부의 항일 구국투쟁을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 정부가 과연 진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되고 있다면, 심지어 중국이 바라는 한국의 독립이란 결국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일 뿐이라고까지 단언하였다.<sup>21)</sup>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상호인식의 차이, 특히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부재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호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문헌을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다. 『감시만어』의 경우 한국에서 1983년과 2002년에 선후로 두 번이나 한글번역 및 주해본이 출간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번역에서 탈락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물론 그것은 한문으로 작성된 원본에 대한 독해능력의 문제로 일단 접어두더라도 2002년에 『한민족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두 번

20) 尙丁, 『黃炎培』, 北京: 人民出版社, 1986, 67쪽.

21) 『臨時議政院34回議事錄』(1942년 11월),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368쪽.

째 역해본의 경우 더욱 문제가 많았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흉구공원 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해를 떠나 항주 등 중국 내지로 망명의 길을 떠난 사실을 전혀 무시한 채 이시영 선생이 1933년 여름에 상해의 서점에서 황염배의 『조선』이라는 책자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어긋나는 소개를 하는가 하면, 특히 『감시만어』의 원본을 무슨 “중국정부의 1급비밀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中國共產黨 中央編譯局”에서 ‘발견’하였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중앙번역국이라는 부서는 덤스로부터 엥겔스, 레닌 등 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원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아울러 毛澤東 등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저술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립번역기관이며 그 산하에는 中央編譯出版社라는 출판사도 있는데 필자 역시 1997년에 그 출판사에 서 한국의 전직대통령 재판에 대한 저서를 출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번역국이라는 부서 자체가 애당초 “중국정부의 1급 비밀문서”를 보존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그리고 1983년에 벌써 번역 출간된 적이 있는 『감시만어』를 그곳에서 다시 찾아내었다고 한즉 그것을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었다. 사실과 전혀 어긋난 과장된 선전이 책의 판로와 관계되는 일종의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처럼 솔직하지 못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국인의 그릇된 한국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감시만어』의 저자인 성재 이시영 선생의 참된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학계의 중국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과정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어긋난 과장 심지어 거짓의 사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장 또는 거짓은 결국 한국의 중국관련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서 올바른 중국인식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된다.



#### 4. 21세기 초 고구려사 논쟁으로 본 한·중 두 나라 상호이해의 현실

고병익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흔히 같은 인종과 같은 문화권으로 알려진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일찍 근세 이전 여러 세기부터 오랫동안 서로 소원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 오늘날 유럽과 같은 하나의 문화권 또는 경제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형성해왔는데, 그 원인으로 일단 지역 공통어의 결여, 상호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연도표시방법의 차이, 국가와 민족 사이의 평등관의 결여 등을 지적했다.<sup>22)</sup> 구체적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중 두 나라에 국한할 경우 필자는 무엇보다 근대이래 한중관계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유지되어 온 전통적 조공체제하에서 두 나라는 상호 평등한 국가와 민족관계를 전혀 전개할 수 없었고, 그 후 1899년에 이르러 겨우 맺어진 公使級 외교관계는 곧이어 1905년 한일보호조약에 의해 거의 단절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과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으로 조선왕조와 청왕조가 멸망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공식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후 1945년의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침략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백만에 달하는 인원교류(오늘날 200만을 헤아리는 중국조선족의 대다수는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민 1, 2세대의 후손이다) 등 유난히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두 나라는 어떤 공식적인 국가관계가 없었고,<sup>23)</sup> 8·

22) 고병익,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소원과 통합』, 『창작과 비평』, 1993년 봄.

23) 권혁수,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

15 해방 후 한반도와 중국이 분단국가로 굳어지면서 상호관계 역시 중국대륙과 조선, 대만과 한국이라는 반쪽의 관계로 1990년대까지 거의 반세기를 지내왔다. 1992년 한중수교로 말미암아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남과 북과 모두 공식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에서 단 두 개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중국과 한반도의 상호관계는 상당부분 정상적인 그리고 완전한 국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호관계의 불완전성, 심지어 왜곡은 결국 두 나라 두 민족간 상호인식의 불완전성 또는 왜곡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 말의 경우 중국사람들이 소위 ‘朝鮮亡國史’를 통해 한국을 실페의 거울로 간주했던 것과<sup>24)</sup>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국운이 날로 기울어져 가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심지어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5)</sup> 8·15 해방 전 거의 반세기 동안 한·중 두 나라 두 민족 사이의 상호 부정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그 후 역시 반세기 가까이 중국대륙 사람들이 ‘조선’만 알고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자유중국’만 알고 ‘공산중국’ 또는 ‘중공’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근대이래 두 세기를 넘은 한중관계사의 시각에서 볼 때 두 나라 두 민족은 상대방을 평등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여건을 거의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심지어 왜곡된 상호인식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 관계사로 이어졌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사는 상호인식의 불완전성 또는 왜곡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한·중 두 나라 두 민족이 오늘

第一輯, 『홍콩社會科學出版社』, 2004, 38~54쪽 참조.

24) 이시영이 『感時漫語』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저술한 소위 ‘朝鮮亡國史’의 허황함을 지적한 것은 바로 이처럼 부정적 인식으로 가득 찬 한국인 및 한국사 인식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25) 백영서, 『대한제국이 한국인문의 중국인식』, 『역사화보』 제153집, 1997 참조.

날까지 분명 여러 분야에 걸쳐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도 마음 속으로 여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한·중 두 나라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고구려사 논쟁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상호인식 차원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우 고구려사를 중국역사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고구려와 고구려역사가 한국역사 및 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형식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는 중국적 세계질서에 맞서 중국의 東進을 막고 요동반도를 확보하여 백제, 신라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으며 한반도의 생활권을 확보해준 나라였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필자 역시 『삼국사기』 편찬부터 계산하더라도 고구려를 한국 고대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한민족의 역사인식과 기술은 적어도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랜 傳乘이었다는 사실을 중국학계에 소개한 적이 있다.<sup>27)</sup> 위와 같은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모르고서는 한국학계 및 사회일반에서 왜 1500년 전의 고구려역사에 그토록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유일의 정치대국, 경제대국, 문화대국을 배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잉태된 중국민족의 우월의식에서 형성되어온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사상”<sup>28)</sup>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사상은 사실상 중국역사 발전의 생명력이자 중국의 혼과 불멸의 생명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6) 신형식, 『고구려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403쪽.

27) 馬大正·李大龍·耿鐵華·權赫秀,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10, 379~411쪽.

28) 이춘식, 『중화사상』, 교보문고, 1998, 머리말 참조.

이처럼 다른 나라와 민족의 오랜 전통과 직접 관련된 역사문화적 문제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 못지 않게 상대방 나라와 민족의 전통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고구려사 개설서인 耿鐵華의 『中國高句麗史』와 한국학계의 대표적인 고구려사 개설서인 신형식의 『고구려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논평하면서 특히 고구려사 귀속 등의 문제에서 전혀 상반되는 연구결론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역사의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학계의 경우 일찍부터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3세기로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저서에서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북한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기원전 1세기(BC 37년)설을 그대로 주장한 것이 그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필자는 중국학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sup>29)</sup>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학계 및 연구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입장과 견해 및 경향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똑같은 연구대상 또는 연구 주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심지어 전혀 상반되는 연구결론을 얻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게 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여러 나라 및 여러 민족과 관련된 역사문제에 있어서 “결론 다를 뿐만 아니라 귀결도 결국 서로 다른(殊途而不同歸)” 국면은 심지어 오늘날 국제학계의 소위 ‘상태(常態, a Normal State)’로 볼 수 있는데, 모름지기 위와 같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

고대 고구려역사를 비롯한 학문적 논쟁에서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

29) 권혁수, 「殊途未必同歸, 存異或可求真—讀中韓學界兩部高句麗史研究最新代表作, 『東北史地』 2004年 第4期.

의 학계 및 연구자들 사이에 일단 “차이점을 그대로 남겨두어(存異)”도 무방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혹은 “진실을 되찾을 수(求真)”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필경 역사의 진실은 개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고구려사 논쟁은 이미 학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심지어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논쟁의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앞서 살펴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두 가지 사례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였다. 이처럼 논쟁이 심각하고 치열해지면서 한중 두 나라 국민의 상호인식까지 크게 어긋나고 있는 현실일수록 논쟁의 주제 및 관련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의견표출 특히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발언과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즉,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일반의 관심과 참여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한 나름대로 이 유 있는 대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문적 연구 자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고구려사 논쟁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연구로서 토론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논쟁에 앞서 상대방의 관점 및 관련 사실을 일단 바르게 제대로 소개하는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컨대 동북공정의 예산규모와 관련하여 분명 인민폐 1500만 원, 한화로 약 24억 원에 해당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최고 3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쟁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일종의 誤導가 아닐 수 없었으며 그러한 오도는 결과적으로 논쟁의 바람직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의미에서 고구려사에 관한 남북한 학계의 대표적인 견해를 중국학계에 정확하게 번역소개하고 아울러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주장을 한국학계에 올바르게 번역소개하는 작업은 관련 국가 학계의 상호교류(논쟁을 포함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관련 국가·국민 사이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성과가 이미 한국학계에 상당부분 번역 소개되어 있는<sup>30)</sup> 반면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자들은 아직도 남북한 학계의 관련연구문헌과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의 주관으로 남북한 학계의 고구려역사 및 고고학 관련 주요 저서 총 10권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고도의 문화침략책’<sup>31)</sup>이라는 일부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중 두 나라 학계의 연구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 5. 바람직한 상호인식과 미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계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두 나라 두 민족은 분명 가까운 이웃이며, 또한 앞으로도 틀림없이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직한 상호인식에서 바람직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한·중·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인식이 오랫동안 제대로 잡히지 못한 사실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인즉,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고구려사 논쟁은 오히려 장차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

30) 王健群著, 王健群譯, 『廣開土王碑研究』, 1985; 李殿福·孫玉良著, 姜人宇· 김영수역, 『高句麗簡史』, 삼성출판사, 1990; 김정배·유재신편, 『중국학계의 고구려사인식』, 대북연구소, 1989.

31) 『중앙일보』 2003년 8월 6일, 17면 참조.

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한 계기로 될 수 있다. 즉 앞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두 차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두 세기까지만 해도 한·중 두 나라 두 민족은 올바른 상호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역사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로 어긋난 심지어 왜곡된 상호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기회조차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두 나라의 관계는 이미 상호평등한 자격과 평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 두 세기의 한중관계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 두 나라 두 민족은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또한 상호인식을 서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한중관계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급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호인식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중 상당부분이 바로 역사 특히 상호관계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6·25전쟁 당시 한중 두 나라의 군대가 분명 3년 동안 서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이르러 두 나라 정부당국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아무런 공식해명도 없이 ‘순조롭게’ 수교성명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한중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에서 6·25전쟁에 대한 기술훈이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면서 그러한 차이점이 결국 두 나라 차세대 국민들의 상호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상호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무조건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상책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고구려사 논쟁을 계기로 한중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인식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보다 바람직한 상호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본다면 결국 두 나라 두 민족의 보다 바람직한 미래관계를 위한 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중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인식을 바르게 하고, 그러

한 올바른 상호인식을 바탕으로 더 바람직한 관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서라도 오늘날 고구려사 논쟁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리고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잘 넘어가야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비로서, 정녕 그 길 이어말로 한·중 두 나라 두 민족이 진정 가까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한국의 한 소장 연구자가 쓴 다음 내용의 글에 상당히 공감한다. “한국과 중국이 공정한 시각에서 고구려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공동연구의 날이 오기를 희망해본다. 지금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고구려를 빼앗고 지키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들이 아니다.”<sup>32)</sup>

32) 이인철 외 9명, 앞의 책, 125쪽.

## 근대이래 中韓 양국의 상호인식

— 黃炎培의 『朝鮮』과 李始榮의 『感時漫語』를

중심으로 —

###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인 집단체힘의 所産으로서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누적된 이미지가 하나의 정형된 관념으로 정착될 경우 그것을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역사기록과 역사교육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전승·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외교관계를 비롯한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법이지만 또한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른바 자기실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 사이 상호인식과 상호이해의 문제는 흔히 정치, 안보 및 경제, 무역 등 가시적인 현실적 이해관계에 비해 소홀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韓 두 나라의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관계의 밀접성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드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 이래 거듭된 폭력과 변화를 거쳐 1992년 8월 24일에 수교

한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지 수교 14년 동안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공식 합의하고 특히 경제, 무역, 문화 등 분야에서 고속성장으로 일관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관계에 비해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인식과 이해수준은 한마디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만한 사회적 파장과 더불어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고구려사 논쟁 역시 중한 두 나라의 상호인식 및 상호이해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sup>1)</sup>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근대 중국과 한국간 상호인식에 관한 하나의 사례연구(case study)로 1920년대 중국의 사회교육가 黃炎培가 저술한 한국개설서 『朝鮮』과 그 책에서 나타난 그릇된 한국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한 상해임시정부 요인 省齋 李始榮 선생의 『感時屢語』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중국과 한국간 상호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보려고 한다. 정녕 역사학이란 결국 이미 지나간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통해 오늘날 미래에 유익한 교훈과 가르침을 나름대로 얻어내는 학문에 불과하였다.

## 2. 黃炎培의 『朝鮮』을 통해 본 근대중국의 한국인식

黃炎培(1878~1965)의字는 任之, 호는 抱一이며 청왕조 말의 1878년에 옛 뚝나라 지방으로서 지금의 上海市 川沙縣 城廂鎮의 한 가난한 선비집안에서 태어났다. 일찍 과거공부를 시작하여 1902년에 25세의 나이로 과거 급제(秀才)를 하였지만 한 해 전부터 상해의 남양공학

1) 권혁수, 『한중상호이해의 어제와 오늘』, 『역사비평』 2000년 겨울호.

에서 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신식학문과 신식교육을 터득하였고 신식학교의 창설을 통해 근대교육기의 길로 나아가는 한편, 중국 국민당의 전신인 中國同盟會 가입을 통해 근대민주혁명의 대열에도 적극 가입하였다. 1917년 5월 황염배는 상해에서 근대중국 최초의 직업교육기관인 중화직업교육사를 창설하면서 일약 근대중국의 유명한 사회교육가로 성장하였고 활발한 정치, 사회활동을 통해 국민당정권 시절에 줄곧 재야 유력인사로 활약하였다. 1945년 7월 4일 오후에 재야출신의 國民參政會 參政員 자격으로 延安를 방문한 황염배가 당시 中國共產黨 주석 毛澤東과 나는 민주정치에 관한 담화는 중국현대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담론 중의 하나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sup>2)</sup>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황염배는 줄곧 中華職業教育社를 이끌고 직업교육, 사회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中國民主同盟, 民主建國會 등 정치단체의 책임자 및 민주인사자격으로 政務院 副總理 輕工業部 部長,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副委員長, 全國政治協商會議 副主席 등 정치적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현실정치무대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후 1965년에 86세의 고령으로 타계한 황염배는 근대중국의 유명한 교육가이자 사회활동가 및 정치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sup>3)</sup>

황염배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첫 인상은 어린 시절 서당공부에서 중국고전 『尙書』 洪範篇을 배우면서 箕子가 주나라 武王에 의해 조선에 봉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역시 어린 시절에 높은 곳에 긴 두루마기를 입고 상해지방을 유랑하면서 붓글씨를 팔고 다니던 조선인 선비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sup>4)</sup> 이처럼 어린 황염배의 머리 속

2) 黃炎培, 『延安歸來』, 重慶: 國訊書店, 1945, 62쪽.

3) 황염배의 일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尙丁, 『黃炎培』, 北京: 人民出版社, 1986; 王華斌, 『黃炎培傳』,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1992 참조.

에 각인된 조신의 첫 인상은 중국의 ‘封地’로서의 조선 및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 망명한 조선선비의 담루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 그러한 모습은 당시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비친 일반적인 이미지가기도 하였다. 그후 황염배는 1918년 7월에 중국 동북3성을 거쳐 식민지 조선을 처음으로 여행하였고, 당시 여행견문을 자세하게 메모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그 메모장을 분실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이처럼 일찍부터 가져온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은 결국 1927년 10월의 제2차 한국여행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朝鮮』이라는 한국개설서를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황염배는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국민당정부의 체포령을 피해 대련에 피신해 있었다. 일찍이 청나라 말인 1898년에 벌써 러시아제국의 조계지로 확정되었던 대련은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일본제국의 조계지로 전락하여 關東都督府, 南滿洲鐵道株式會社 및 關東軍중사령부를 비롯한 주요침략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일제의 중국 동북 침략의 핵심거점으로 되어 있었다.<sup>5)</sup> 앞서 제1차 한국여행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하였던 교훈을 되새겨 황염배는 먼저 대련에서 나름대로 한국관련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주로 일본인 한학자 마쓰지카(松崎鶴雄) 등의 도움으로 滿鐵 부설 大連圖書館에 소장된 한국관련 지리 역사서적 및 ‘朝鮮今政府歷年’의 통계 및 보고자료들을 대량 탐독하였다고 한다.<sup>6)</sup> 여기서 이른바 ‘朝鮮今政府’란 바로 당시 한국에서 식민 통치를 실시하고 있던 일제의 조선총독부를 지칭하는데 이처럼 황염배의 한국관련 자료조사가 처음부터 일제의 한국식민통치기관 및 관

4) 黃炎培, 『朝鮮』, 上海: 商務印書館, 1929, 2쪽.

5)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南滿洲鐵道株式會社三十年略史』,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本社, 1937; 顧明義 외, 『日本侵佔旅大四十年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 참조.

6) 黃炎培, 『朝鮮』, 5~6쪽.

련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 그의 한국관련 저술의 경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준비작업을 거쳐 황염배는 1927년 10월 11일에 부부동반으로 대련에서 한국으로 向發하여 서울, 인천, 평양 등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한달 뒤에 대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초부터는 무려 120일 즉 1928년 3월까지 4개월 남짓한 작업을 거쳐 『朝鮮』이라는 제목의 한국개설서를 완성하였고, 다시 1년 후 1929년 9월에 당시 중국 최대의 민영출판사로 손꼽히는 상해의 商務印書館에서 위 책을 출간하였다. 책의 앞머리에서 황염배는 당시 자신의 한국여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의 임무가 바로 농촌교육 및 경제를 고찰하는 것인즉, 조선과 대만 그리고 인도의 경우 모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혹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동방의 여러 곳 즉 조선, 인도, 미얀마, 타이,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의 최근 정치 및 사회상황에 관한 중국어로 된 출판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득하니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 위의 여러 곳은 모두 오늘날 이른바 약소민족으로서 이른바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진정 그 민족들을 가여워하면서 그 주의를 미워한다면 어찌 저들 민족들이 그 주의 밑에서 의 실상을 깊이 살펴보기 않을 수가 있겠는가? 허물며 위의 여러 곳은 모두 우리 중국과 수백년 또는 천년 이상의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흥하였고 일부는 망하였으니 역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크게 연구해 볼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런 곳의 사실을 기록한 책이 한 권도 없단 말인가??

황염배의 지적처럼 당시 중국에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7) 黃炎培, 『朝鮮』, 1~2쪽.

이웃인 한국의 기본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해줄 수 있는 개설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본문 5장에 부록 1장까지 총 335 페이지에 달하는 위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緒言
- 제2장 前연적 조선
  - 제1절 형세
  - 제2절 기상
  - 제3절 天産
  - 제4절 인종
- 제3장 과거의 조선 및 조선사람
  - 제1절 선사시대
  - 제2절 史史概覽
  - 제3절 漢族開化時代
  - 제4절 삼국시대
  - 제5절 고려시대
  - 제6절 李朝鮮時代
  - 제7절 朝鮮失國
- 제4장 현재의 조선
  - 제1절 개척
  - 제2절 政區
  - 제3절 호구
  - 제4절 행정
  - 제5절 재정
  - 제6절 경제 및 산업
  - 제7절 교육 및 문화
  - 제8절 토목 및 교통
  - 제9절 사범

- 제10절 경찰
- 제11절 위생
- 제12절 군사
- 제5장 현재의 조선사람
  - 제1절 조선인의 체격
  - 제2절 조선인의 지력
  - 제3절 조선인의 언어문자
  - 제4절 조선인의 예술
  - 제5절 조선인의 도덕관념
  - 제6절 조선인의 종교관념
  - 제7절 조선인의 群力
  - 제8절 조선인의 생활력
- 부록 조선의 中華僑民
  - 제1절 화교인구
  - 제2절 화교공상업

무려 28개의 도표 및 27개의 挿文을 곁들인 위와 같은 내용은 1920년대 후반 당시 식민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상황을 거의 빠짐없이 망라함으로써 근대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한국개설서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필을 마친 지 두 달 뒤인 1928년 5월에 일본군이 山東省 濟南에서 3,9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학살한 濟南慘案을 일으켰는데, 따라서 황염배는 위 책의 서문에 서 일본의 대륙침략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조선을 연구해야 하는 즉 식민지 조선의 오늘날 현실이 바로 중국에 하나의 훌륭한 거울로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소개를 통해 중국국민들의 애국심과 일제 침략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의



도 자체는 물론 훌륭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접근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 황염배의 이번 한국여행은 거의 전적으로 일제식민통치당국의 배려 하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전문인원을 보내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방 및 관련 식민통치기관으로 안내하면서 자세한 식민통치자료 및 관련서적들을 대량 기증해 주었고, 또한 이나바(稻葉岩吉) 등 일제어용화자들을 동원하여 그의 한국고찰을 안내해 주었다. 이처럼 일제식민당국의 의도적인 안내와 배려로 이루어진 그의 한국고찰이 결국 식민지 한국의 내막 실상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황염배는 위 책지에서 일본식민당국의 한국통치를 소위 '善政'으로 주장하면서 결론으로 이미 일본과 동등의 고등교육권을 향유하게 된 한국인들도 모름지기 피 홀리는 무장투쟁보다는 학문적 노력을 통해 그 어떤 강국도 감히 염신여길 수 없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약자로서 취할 수 있는 '光明大道'라고 호소함으로써, 사실상 일제의 한국식민통치를 찬양하면서 한민족의 항일구국투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sup>8)</sup> 따라서 일제식민당국의 식민통치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된 위 책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특성에 대한 온갖 오류와 편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일제식민당국의 의도적인 왜곡된 안내와 소개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중국 중심적 시각의 영향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단군조선 관련기록을 허무한 진실로 치부하는 반면 일제식민당국의 이른바 '조선역사연구 및 고고학발굴' 성과에 근거하여 漢四郡 이전의 한국문화는 완전히 中華에서 發源된 것이라고 단언함. (50~57쪽)

8) 黃炎培, 『朝鮮』, 14쪽.

중국 측 역사기록에 의한 기자조선, 위만조선 및 한사군 관련사실에 근거하여 삼국시대의이전의 한국역사를 이른바 중국 '漢族'에 의한 '開化時代'로 단정함. (58~66쪽)

일제식민당국에 의한 조작된 식민사편을 그대로 본받아 이른바 일본 神功皇后 등에 의한 '南鮮經略'설을 주장함. (71~72쪽)

조선왕조의 역사를 왕실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빚어진 이른바 '家難' 및 당쟁과 외환이라는 세 개의 주체어로 개괄하여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기술하였는데 당시 그가 참고한 주요역사서는 오다(小田省吾)의 『李朝政爭略史』를 비롯한 일제어용화자들의 연구성과였다. (85~91쪽)

연대기 형태의 도표로 '朝鮮失國經過'를 기술하면서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의 주도하에 민비를 統率한 을미사변을 그저 '亂兵殺戮妃'라고 하여 마치 폭동을 일으킨 한국군인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것처럼 기록한 반면 1908년의 의병항쟁을 '暴徒蜂起'라고 하여 완전히 일제침략당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 (91~95쪽)

일제식민당국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교육보급률이 일본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절명 비율도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289~296쪽)

식민지조선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조선총독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인들은 모방의 능력이 강한 반면 창조적 재건이 부족하다느니 조선인 속의 우둔한 사람들은 심지어 숫자도 헤아릴 줄 모를 정도이며 그나마 똑똑해 보이는 남한사람들이 대개 간사스러운 반면 우직하고 강인한 북한사람들은 대개 우둔하다는 등 한국인을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 (298쪽)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본 조선역대명인사회를 두고 한국의 사회에 술작품이 모두 퇴폐한 정신과 협소한 기백으로 전혀 볼품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폄하하였고, 조선총독부의 경찰치안 관련기록 및 일본관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선인의 범죄율이 식민지조선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던 일본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선인의 도

덕관념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단정함. (303~306쪽)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일제식민당국에 의해 허가된 조선인 사회단체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조선인의 민족적 응집력과 단결력이 부족하다고 단언함. (310~312쪽)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일본인에 비해 훨씬 낮고 또한 조선인의 저축을 역시 일본인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조선인의 생활력이 일본인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단언함. (313~316쪽)

말하자면 한국은 처음부터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처럼 따라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었고 심지어 평등한 교류상대로조차 간주되지 않은 채 오히려 중국국민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자각을 불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실패적 교훈 또는 거울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근대중국의 한국관련 저술이 대저 『朝鮮亡國史』와 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도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조선국왕 고종의 외교통상관련 고문역으로 來韓하였던 근대중국의 교육가 馬相伯 역시 훗날의 회고에서 근대중국과 한국의 국운쇠퇴과정을 비교하면서 “중국은 확대된 高麗이고 고려는 바로 작고도 구체적인 중국이다”라고 개탄하였는데,<sup>9)</sup> 바로 당시 중국의 부정적인 한국인식의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데, 대민학자 張存武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 조공무역관계를 연구하면서 “청나라와 한국의 정치상황은 마치 형제와 같았고 大華와 小華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로였다”라고 지적하였다.<sup>10)</sup>

9) 馬相伯, 『我與高麗』, 朱維錚主編, 『馬相伯集』,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1089~1091쪽; 權赫秀, 『馬相伯在朝鮮的顧問活動』(1882年 11月~1884年 4月), 『近代史研究』2003年 3期 참조.

10) 張存武, 『清韓宗藩貿易 1637~1894』,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8,

여러튼 근대중국 최초로 가장 체계적인 한국개설서인 황염배의 『조선』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온갖 오류와 편견으로 점철된 내용으로 가득 찬 사실은 당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중국 주류사회의 엄청난 몰이해와 無知 심지어 그것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20세기 초 당시 한중 두 나라 상호이해와 인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적절 반영하고 있었다.

### 3. 李始榮이 지적한 근대중국의 한국인식의 문제점

황염배의 위와 같이 그릇된 한국인식은 중국 국내에서조차 문제로 지적되었다. 당시 중국국민당 요인으로서 한국독립운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鄒魯는 일제의 조선식민통치가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황염배의 저술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자신이 직접 한국을 여행하였는데, 그의 눈에 보인 식민지 조선은 황염배의 저술내용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사회’였다. 따라서 그는 황염배는 한국여행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제 식민당국의 인내를 받으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식민통치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朝鮮亡國人民의 실제적 상황”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sup>11)</sup> 그러나 황염배의 그릇된 한국관련 저술에 대하여 즉시 신랄하고 유력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당시 중국 내지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이시영 선생이었다.

李始榮(1868~1953) 선생의 자는 聖翁, 호는 省齋로서 일찍 1891년에 문과급제 후 조선왕조 후기에 同副承旨, 平安觀察使, 法部 民事局

238쪽.

11) 鄒魯, 『祝朝鮮復國的回顧』, 『中央日報』, 1945년 10월 25일.

長 등 요직을 역임하였지만, 1910년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온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로 건너가 新興軍官學校를 설립하여 무장독립운동을 위한 청년장교의 육성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1919년의 3·1독립운동 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설립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法務總長, 財務總長, 議政院長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항일구국투쟁에 헌신하였고,<sup>12)</sup>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초대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독재정치에 반대하여 '국민에게 속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부통령직을 사퇴하였고 1953년 4월 15일에 85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별세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항일구국투쟁에 여념이 없던 이시영 선생이 우연히 어느 중국 서점에서 위 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출간된 지 2년 뒤인 1933년이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싸워온 이시영 선생은 황염배의 위와 같은 그릇된 한국관련 기술을 읽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사람들의 韓國觀에 부족한 점이 많고 자세하지 못한 것은 벌써 오래된 것인즉, 청나라 말로부터 한국의 사정에 관한 저술이 6, 7종이나 있었지만 어떤 것은 황당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어떤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사실에 어긋나거나 누락되어 별로 읽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 중에서 황씨가 쓴 것은 상당히 공력을 기울인 것이지만 역시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 대저 일본사람들의 저술을 참조하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서 그 진실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사람이 볼 때 그 한 책의 내용은 일본사람을 대신하여 宣揚하는 것에 불과함으로서 상당히 불만스러웠다.<sup>13)</sup>

12)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史』, 서울: 김문당, 1982 참조.

13) 정재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感時漫語(毅黃炎培之韓史觀)』, 서울: 일조각, 1983; 이청원 역해, 『한민족은 위대하다』, 서울: 한밤, 2002. 그러나 위 두 책

이에 이시영 선생이 분명히 붓을 들고 저술한 것이 바로 『感時漫語-黃炎培의 韓國史觀을 論駁함』이었다. 여기서 이시영 선생은 먼저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중국인의 시조로 알려진 요임금과 같은 시대의 임금이라고 역설하면서 배달민족의 기원, 기자의 평양과 고구려의 평양, 발해 및 고려, 한민족의 언어 문자 및 도교 등 내용을 통해 한민족의 우수성과 한국역사의 오래됨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황염배의 『조선』이라는 책자를 통해 나타난 일제의 식민사관 및 중국 중심의 한국사관에 의해 왜곡된 한민족과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이시영 선생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誣史辨正)'는 취지 하에 황염배의 『朝鮮』에서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조목조목 논박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箕子の 封國

##### 한민족 문화의 유래

##### 일본의 神功皇后에 관한 이야기

##### 한국사람의 智德

##### 한국사람의 창조력

##### 한국 貨幣觀에 대하여

##### 排華感情을 촉발시킨 음모

##### 김희·結社에 관하여

##### 張良이 力士를 초빙한 것에 대한 考據

##### 伯夷의 首陽山

##### 대원군 行政

모두 漢文으로 된 原文을 한국어로 옮길 때 잘못된 번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줄고에서 인용한 관련 내용은 모두 필자가 새롭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위와 같은 내용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국통사 또는 한국문화사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 것인데, 그러한 방대한 내용의 고종과 바로잡기 작업이 중국 망명지에서 참고문헌을 비롯한 최소한의 연구조건도 갖추지 못한 최악의 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성제 선생의 민족사랑과 나라사랑의 깊고 높음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성제 선생은 일제식민양국의 안내와 도움으로 한국을 고찰한 황염배의 접근지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황염배씨가 호기심을 갖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사를 기술하여 거울로 삼자고 한 것은 물론 그 본의가 역사의 실상을 왜곡하지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로지 일본을 대신하여 저들의 거짓된 仁과 僞善의 설을 宣揚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상한 것은 우리 나라의 고전을 조사하고 遺風을 탐방하면서 어찌하여 僞人文士들을 찾지 않고 일본사람들의 일방적인 말에만 오로지 의존하였으니 그야말로 본을 버리고 末을 좇으며 사실을 버리고 그릇된 것만 입증하는 것이 되었다. 황씨가 참고로 사용한 소위 행정연감은 일본의 범죄행위의 기록에 해당하는 책이었고 저들의 허상을 자랑하기 위한 秘本을 절세의 회귀본으로 알고 자랑하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결국 일본사람들의 발톱을 따라 한국을 모욕하는 셈이 된다. 일본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사의 진수를 검토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실정을 모르고 하는 것으로서 여우와 더불어 그 가죽을 도모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sup>14)</sup>

그리고 성제 선생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 온 19세기 말 한국근대사의 내막을 자세히 소개하고 아울러 역시 제국주의 침략으로 밀어냄어기 울어져 가고만 있는 근대중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1910년부터 장장 24년 동안의 중국망명생활을 통해 쌓아온 자신의 중국사랑을 다음

14) 『感時漫語(駁黃炎培之韓史觀)』, 24쪽.

과 같이 진술하게 밝혀두었다.

庚戌年(1910) 겨울에 먼저 (중국의) 東北지방에 도착한 뒤 그후 화북과 尙해지방을 오가면서 벌써 24년이 되고 도시와 시골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발전된 곳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였고 위축된 분위기를 하나라도 보게 되면 가슴이 짝 메이는 듯하였다.<sup>15)</sup>

바로 중국과 중국사람들에 대한 위와 같은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제 선생은 그 누구보다도 황염배 같은 중국의 주류층 인사들이 한국과 한국사람들을 너무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여기서 성제 선생은 황염배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하여 무지가 아니면 그릇된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중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그 점이 결국 20세기 초 중국이 쇠약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교하였다.

道學으로 세상에 알려진 朱子의 경우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여전히 (한국에 대해) 명석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 博學多識하다는 韓太炎도 漢四郡의 疆域을 茫然하게 분간하지 못하였다. 文豪로 자처하는 梁啟超는 이웃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지도 않은 채 근거도 없는 설을 힘부로 떠벌리면서 심지어 國文도 없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妄斷을 늘어놓았다. 그밖에도 薛仁貴의 東征이요 소위 영웅의 눈물이요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몇 종류의 조선망국사의 경우 후시 조약의 문구를 베껴 놓은 것 외에 대개 虛妄되고 그릇된 말만 가득 늘어 놓고 연대와 姓名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전도되어 틀리지 않은 것이

15) 『感時漫語(駁黃炎培之韓史觀)』, 93~94쪽.

한 곳도 없어 한 톨의 가치도 없었다.<sup>16)</sup>

이시영 선생에 의하면 근대이래 한중 두 나라의 몰락일로의 역사적 운명은 너무나 흡사하여 “서양인들의 평에 의하면 한국은 작은 청나라(大清國)이고 청나라는 큰 조선(大朝鮮)이다라고 하였는데 말하자면 魯衛之政이一體라는 뜻이다”라고 개탄하였다.<sup>17)</sup> 여기서 비록 서양사람들의 논평을 전하는 형식이었지만 “한국은 작은 청나라이고 청나라는 큰 조선이다”라는 지적은 앞서 미상백의 “중국은 확대된 高麗이고 高麗는 바로 작고도 구체적인 중국이다”라는 지적과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닮은 표현으로서 오늘날 깊이 되새겨 불만한 구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성재 선생은 한중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다음과 같이 거듭 호소하였다.

이제 한국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으면서 바야흐로 새로운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중국사람들은 한국인의 발자취를 뒤따라 밝아 오면서 아직도 동지 속의 제비와 같은 단꿈에 젖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녕 나의 피로움으로 겨를이 없는데 다시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 보태어지는 것인즉 어찌 끝없는 痛恨으로 울고 싶어도 눈물마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삼가 뜨거운 눈물 가득히 중국의 인사들에게 경고하련다. 앞으로 한국사람들의 復國사업을 마치 자기 집안 일처럼 대해 주어야 하며 더 이상 일시적인 흥분으로 시작만 있고 끝이 없어서는 안되며, 또한 어느 한 구석의 재단을 구체화하는 것처럼 걸치레 말만 질펀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힘으로 그

일을 원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찍 청나라 光緒 때부터 한국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위태로워졌는데, 따라서 중국을 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한국을 구해야 한다. 이는 논리학에 있어서 三段論法인 것이다.....

하늘이 후시 우리 두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어 세상을 구해 줄 큰 별을 내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옛 말씀에 백성이 원한다면 하늘도 이에 따른다고 하였고 또 인재를 다룬 시대로부터 벌여 올 것이 아니라고 하였거늘 비록 지금의 세상이라도 어찌 세상을 구제할 인물이 없겠는가? 이어서 원컨대 두 나라 인사들이 과거의 실패를 뒤우치고 그런 일이 장차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경계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함께 도모하고 생사의 일선의 같은 처지에서 마치 磁石이 바늘을 끌어당기듯이 지내어 간사한 소인배들이 投機하면서 장난치지 못하게 한다면, 비록 지금은 칠후 같은 긴 밤이라 온전하게 살아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한 점의 曙光이 大地를 밝게 비추고 있으니 國權을 회복하여 활약할 그때가 결코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무지와 몰이해 심지어 왜곡된 인식에 대한 비판은 물론 성재 이시영 선생 한 분만의 지적이 아니었다. 역시 상해임시정부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孫中山을 비롯한 중국 민주혁명세력과 일찍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 온 睨觀 申圭植 선생도 『韓國魂』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내가 홀홀 단신으로 중국에 망명하여 보니 저들이 지금 斯文의 宗匠이라고 일컫는 韋炳麟 같은 사람은 漢나라가 설치한 玄菟, 樂浪, 臨屯, 眞番 4郡이라는 것이 사실 衛滿이 차지한 땅의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자칭 多聞博涉하다는 梁啓超 역시 우리

16) 『感時漫語(愼黃炎培之韓史觀)』, 27쪽.

17) 『感時漫語(愼黃炎培之韓史觀)』, 48쪽.

18) 『感時漫語(愼黃炎培之韓史觀)』, 121, 125, 130쪽.

나라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이 잘못된 결론을 주장하며 심지어 “國文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심하기구나, 우리를 모욕해도 너무하지 않은가?<sup>19)</sup>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협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시영 선생은 “지금부터 중국인사들은 한국인을 관찰함에 있어서 절대로 편심을 게을리 하지 말고 더욱이 모욕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더욱 친밀하고 제휴하는 마음으로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하였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영 선생의 진지한 호소는 당시 중국 주류사회에 잘 그대로 미이동될 격이었고 심지어 당사자인 황염배와 진지한 토론과 교류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국민당정권이 줄곧 상해임시정부의 항일구국투쟁을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주요인사들은 오히려 중국정부가 과연 진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심지어 중국이 바라는 한국의 독립이란 결국 “중국의 일부분으로서의 한국”일 뿐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하였다.<sup>21)</sup>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상호인식의 차이 특히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부재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申圭植, 『韓國魂』, 臺北: 宛觀先生紀念會, 1955, 8쪽. 이 책의 초판본은 일찍이 1939년 3월에 중국 重慶에서 『中韓外交史話』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다.

20) 『感時漫語(感黃炎培之韓史觀)』, 65쪽.

21) 朴成勳, 『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368쪽.

#### 4. 결론을 대신하여: 상호인식과 상호이해의 중요성

한국학자 고병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흔히 같은 인종과 같은 문화권으로 알려진 韓中日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일찍 근세 이전의 여러 세기부터 오랫동안 서로 疏通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 오늘날 유럽과 같은 하나의 문화권 또는 경제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형성해 왔다.<sup>22)</sup> 실제로 오늘날 중한 두 나라의 밀접한 경제, 무역 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한 두 나라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화(Globalization) 차원에서 여타 지역에 크게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Regionalization) 차원에서 두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sup>23)</sup> 구체적으로 논의의 범위를 중한 두 나라에 국한시킬 경우 필자는 무엇보다도 근대이래 중한관계의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94년의 청일전쟁 때까지 유지되어온 전통적 조공관계체제 하에서 중한 두 나라는 상호 평등한 국기와 민족관계를 전혀 전개할 수 없었고 그 후 1899년에 이르러 겨우 맺어진 公使級 외교관계는 곧이어 1905년의 한일보호조약에 의해 거의 단절되었으며, 그 후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과 1911년 중국 신해혁명으로 조선왕조와 청왕조가 선후로 멸망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공식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sup>24)</sup>

그후로 1945년의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백만에 달하는 인원교류 등 유난히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두 나라는 공식적인 국가관

22) 高柄翹, 「동아시아나라들의 상호소원과 통합」, 『창작과 비평』 1993년 봄호.

23) 權赫秀, 「西方經驗與東亞的區域合作」, 北京師範大學東亞與西歐比較研討會 발표논문, 2001년 6월.

24)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연구—이홍장의 조선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백산자료원, 2000 참조.

계를 갖지 못하였고<sup>25)</sup> 8·15광복 후 한반도와 중국이 선후로 분단국가로 굳어지면서 상호관계 역시 중국대륙과 조선, 대만과 한국이라는 반쪽의 관계로 1990년대까지 거의 반세기를 지내왔다. 1992년의 중한 수교로 말미암아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남과 북과 모두 공식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에서 돌뿐인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중국과 한반도의 상호관계는 상당부분 정상적인 그리고 완전한 국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호관계의 불완전성 심지어 왜곡은 결국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인식의 불완전성 또는 왜곡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세기 말의 경우 중국사람들이 소위 ‘朝鮮亡國史’를 통해 한국을 하나의 실패의 거울로 간주하였던 것<sup>26)</sup>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국운이 날로 기울어져 가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심지어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7)</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인들이 “중국은 확대된 高麗이고 高麗는 바로 작고도 구체적인 중국이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들 역시 “한국은 작은 청나라이요 청나라는 큰 조선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전해왔다. 8·15광복 전의 거의 반세기 동안 한중 두 나라 두 민족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인식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8·15광복 이후 역시 반세기 가까이 중국대륙 사람들이 ‘조선’만 알고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자유중국’만 알고 ‘공산중국’ 또는 ‘중공’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한미더로 근대이래 두 세기를 넘은 중한관계사의 시각에서 볼 때 중

25) 權赫秀,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會編, 『中國朝鮮史研究』, 1輯,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4, 38~54쪽.

26) 앞서 이시영 선생의 『感時漫語』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저술한 소위 『朝鮮亡國史』의 위황됨을 지적한 것은 바로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찬 한국인 및 한국사 인식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27) 白永瑞, 『대한제국기 한국연론의 중국인식』, 『역사학보』, 153집, 1997.

한 두 나라 두 민족은 상대방을 평등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여건을 거의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잘못된 심지어 왜곡된 상호인식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 관계사로 이어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사는 상호인식의 불완전성 또는 왜곡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이 오늘 날까지 분명 여러 가지로 가까우면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도 결국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서로 비슷한 전통 그리고 근대적 운명을 갖고 있는 가까운 이웃인 中韓 두 나라 두 민족이 그토록 부정적인 상호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상호인식은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관계 및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두 나라의 근대화 및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었을까?

또한 오늘날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은 과연 서로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에 대한 현실의 물음이자 아울러 현실에 대한 역사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과 연구는 중한 두 나라가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한 역사연구의 학문적 의미를 넘어 현실적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은 분명 가까운 이웃이며 또한 앞으로도 틀림없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믿고 있는 실정에서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의 상호인식이 오랫동안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온 위와 같은 현상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노력이 단순한 정부 및 외교차원에 서보다 민간차원 및 사회문화 등 광범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강구되

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인식과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며 중한 두 나라 두 민족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이해, 신뢰의 전면적 동반자관계를 공동 지향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녕 바람직한 상호인식과 상호이해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 중국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하여

### 1. 서론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수천년이 넘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까닭에 두 나라의 상호 관계사는 중국이나 한국 두 나라 역사의 전개과정에서도 모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간의 밀접하고도 유구한 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중한 양국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물론 향후 보다 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현실적 차원에서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것은 중한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중한 두 나라 학계에서 모두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로 중한관계사와 관련된 기본 개념의 정리 및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의 확정, 기초적 자료의 편찬 및 연구사에 대한 정리 등 기초적인 작업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우선 자신의 전공분야인 근대 중한관계사에 대한 중국학계(대만 및 홍콩학계를 포함)의 연구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아울러 근대 중한관계사의 연구대상 등에 대



한 개념정리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하려고 한다. “옛 것을 거울로 삼는다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以古爲鏡, 可以見興替)”는 옛 말처럼 역사에 대한 반성적업은 바로 보다 바람직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日淺하기만 한 근대 중한관계사의 연구사에 대한 반성과 정리작업은 비록 필자의 서툰 정리에 불과하지만 근대 중한관계사라는 학문의 진일보한 발전과 성숙을 위해 분명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근대 중한관계사의 내용, 다시 말하자면 근대 중한관계사란 학문의 연구대상에 대한 설정문제이다. 필자의 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한 두 나라 학계에서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본내용 즉 그 연구대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 자체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부진하다는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2년 전 중국 학자 徐萬民이 편찬한 『中韓關係史(近代卷)』에서는 서문에 해당하는前言 부분에서 근대 중한관계사가 19세기 60년대에 시작하여 1945년 항일전쟁의 승리로 종결된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서 “중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을 抗擊하고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온전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피란민장한 분투역사가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본 내용이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여기서 서만민 교수는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간(19세기 60년대~1945년) 및 그 기본 내용과 관련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그 기본 내용의 설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860년대 이후 중한 두 나라 관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한 두 나라 사이에 연합투쟁의 역사가

1) 『資治通鑿』唐太宗 貞觀 17年條.

2) 徐萬民, 『中韓關係史(近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年 第1版, 1쪽.

일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공동 반대하는 투쟁으로만 개괄할 수는 없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보다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필자는 일단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본 내용을 적어도 국가관계의 차원에서 전통적 조공체제에서 근대적 의미의 조약관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910년 일본의 한국합병 이후에 처음 두드러지기 시작한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공동반일투쟁의 역사도 바로 중한 양국관계가 위와 같은 전통적 관계에서 근대적 관계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간과 관련하여 필자는 근대라는 용어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제쳐놓고 그 하한선을 1945년까지 설정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상한선의 설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중국의 역사는 대략 1840년의 阿片戰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반도의 근대사는 대개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즉 ‘江華島條約’)의 조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으므로 중한 양국의 근대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각각 36년이라는 시차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근대시기에 들어서지는 시점이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의 상호관계가 정확히 언제부터 근대적 변화과정을 시작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 위 36년 동안의 양국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중한관계와 한중관계, 중한관계사와 한중관계사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중국학계의 경우 중한관계 및 중한관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한국학계의 경우 한중관계 및 한중관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구체적

으로 본고의 주체인 근대 중한관계사의 경우 중한관계사가 근대중국  
의 대내외 정치 및 역사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분명 한  
중관계사가 근대한국의 대내외 정치 및 역사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과는 서로 다르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근대 중한관계사  
의 연구와 근대 중한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서로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  
분도 있으면서 서로간의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연구가치를 가질 수 있  
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전통시대의 중한관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적  
국제질서인 조공관계 또는 조공체제(the tributary system)로 표현한다면  
西勢東漸의 세계사적 변화와 더불어 전통시대와의 단절을 겪게 되는  
근대시기부터는 바로 그러한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국가와  
주권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조약관계 또는 조약체제(the treaty system)  
에로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가 정리한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연구대상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사라고 할 수 있다.

## 2. 1945년 이전의 연구상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예로부터 한국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까닭으로 官撰正史인 二十四史의 朝鮮傳<sup>3)</sup>

3) 중국 正史 중의 한국관계사료들을 정리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  
이 있다.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편, 『二十五史抄』, 上·中·下, 檀國大學校東洋學  
研究所, 1977; 국사편찬위원회 편, 『中國正史朝鮮傳譯注』, I·II·III·IV,  
국사편찬위원회, 1987~1989; 金聲九 편역, 『中國正史朝鮮列國傳』, 東文選,  
1996; 김성규 『용어해설 및 주석 中國正史朝鮮列國傳』, 동문선, 1996; 吉林  
師範學院古籍研究所 編, 『二十六史中中朝關係史料選編』, 吉林文史出版社,

등 공식기록을 비롯하여 송나라 徐兢의 『宣和奉使圖經』, 명나라 董樾  
의 『朝鮮賦』 등 사신들에 의한 개인기록도 적지 않게 남아있어 그동안  
의 중한관계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들  
어서면서 당시 조선왕조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차츰 강화되면서 군  
사 또는 외교적 정책을 지닌 청나라 중요 관원들이 조선을 드나들면서  
남긴 기록들 역시 근대 중한관계사의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馬建忠의 『東行三錄』 및 聶士成的 『東游紀  
程』과 『東征日記』 등이다. 마건충은 이홍장의 외교분야 주요막료로서  
1882년 5월부터 9월까지 한미조약의 체결 및 임오군란의 탄압관계로  
무려 세 번이나 조선을 왕래하여 도합 64일 정도 체류하였는데 마건충  
자신이 훗날 3회에 걸친 방한 내용을 일기체 형식으로 자세하게 정리  
한 『東行三錄』<sup>4)</sup>은 근대 중한관계사의 한 내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  
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聶士成은 이홍장의 직계군대인 淮軍의 장  
교로서 일찍 1893년부터 1894년까지 이홍장의 밀명으로 중국 동북지  
역과 러시아 연해주지역 및 한반도 북부지역 그리고 서울까지를 여행  
하면서 『東游紀程』이라는 여행기록과 더불어 군사지도 성격을 지닌  
『東三省韓俄交界道里表』를 남겼다. 같은 해 조선에서 동학농민봉기  
가 일어나자 심사성은 조선정부의 요청에 의한 청나라 원군을 인솔하

1995; 姜孟山の 主編, 『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 一·二, 延邊大學出版社,  
1996; 井上秀雄 編, 『東アジア民族史—正史東夷傳』, 1·2, 平凡社, 1974·  
1976.

4) 馬建忠의 『東行三錄』은 그의 생전에 이미 개인문집 『適可齋紀言紀行』에 수  
록되어 간행되었고 20세기 초 上海의 商務印書館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한 적  
이 있으며, 다시 1952년에 神州國光社에서 校勘을 거쳐 새롭게 간행하였고  
그후 대만의 文海出版社 및 북경의 商務印書館에서 각각 영인 출판한 적이  
있다. 근대한중관계사에서 마건충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권혁수, 『馬建忠與  
朝鮮』, 鄭判龍, 李鍾殷 主編, 『朝鮮—韓國文化與中國文化』,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1995, 176~192쪽 참조.

는 지휘관으로서 다시 조선으로 출동하였으나 곧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충청도 成歡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결과 패전을 하고 평양으로 후퇴하였다가 곧바로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이 출동과 관련하여 첨사성은 『東征日記』라는 자세한 기록을 남겨 당시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청일전쟁의 발발과정에 대한 중요한 현장증언이 되었다.<sup>5)</sup>

한편 청왕조 후반기(17세기 이후)부터 변방지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연구bum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sup>6)</sup> 19세기 후반 魏源의 『征撫朝鮮記』<sup>7)</sup> 薛培榕의 『東藩紀要』<sup>8)</sup> 등의 저서가 바로 그러한 연구bum

5) 蕭士成的 『東游紀程』과 『東征日記』는 1900년 그가 전사한 후 개인문집 형식으로 친지들에 의해 간행되었고 또한 『東三省韓俄交界道里表』와 더불어 王錫祺의 『小方壺齋輿地叢鈔』 등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中國近代史資料叢刊의 일종으로 편집 간행된 총 8권의 『中日戰爭』 자료집에 『東征日記』의 일부 내용이 교감을 거쳐 수록되었고 『東游紀程』은 최근 중국 근대사관계자료총서인 『近代韓海』에 다시 수록되었다.

6) 청왕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변방 및 주변지역 연구의 붐과 관련하여 근대중국 학자 梁啟超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自乾隆後，邊徼多事，嘉道年間學者漸留意西北邊新疆、青海、西藏、蒙古諸地理，以徐松、張穆、何秋濤最名家。松有『西域水道記』，『漢書西域傳補注』，『新疆識略』，穆有『蒙古游牧記』，秋濤有『朔方備乘』，漸引起研究『元史』的興趣，至晚清尤盛。” 梁啟超，『清代學術概論』，『梁啟超史學論著四種』，岳麓書社，1986，61쪽에서 재인용.

7) 魏源(1794~1857)은 근대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역사학자로서 “오랑캐의 선진적인 기술을 배워서라도 오랑캐를 이겨야 한다(師夷之長技以制夷)”는 진보적인 주장을 제창하였다. 그의 『征撫朝鮮記』는 17세기 초 丁卯胡亂과 丙子胡亂에 관한 사실을 청나라 측의 입장에서 단 1권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저서였다. 黃麗鏞，『魏源年譜』，湖南人民出版社，1985 참조.

8) 薛培榕은 일반에 잘 알려진 유명한 학자는 아니지만 한국에 관한 저술은 위의 『東藩紀要』 12권 및 補錄 1권 외에도 『朝鮮輿地圖說』，『朝鮮風土記』，『朝鮮會通條例』，『朝鮮人道紀要』 등의 책을 저술하여 清末의 학자 중에서 한국관계 지식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으로 추정된다. 臺灣中央圖書館編，『中國關於韓國著述目錄』 참조.

의 한국연구분야에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마진충과 첨사성의 한국관련 저술들이 그때 이미 간행되었던 것도 역시 당시 한국상황에 대한 중국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중국과 한국 모두 서세동점의 세계시적 변화와 더불어 서양열강 및 일본세력의 침략을 받게 되는 서로 비슷한 역사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심지어 당시 서양인들은 청나라를 大朝鮮으로 부르고 조선을 小淸國으로까지 불렀다고 한다.<sup>9)</sup> 따라서 근대중국에서의 한국연구 역시 학문적인 관심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시급한 나라와 민족의 존망위기와 관련된 차원에서 애국사상선전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梁啟超의 『朝鮮亡國史』 등이었다. 위의 같은 저서들은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어버리기까지 비참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여 풍전등화처럼 망국의 위기에 놓인 근대중국의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적극 고취하였지만 대개 일본 등 제3국의 문헌이나 신문자료들을 이용하여 짚은 시일 내에 완성된 것으로서 저자 자신들의 독창적인 연구성과가 아니고 한국관계문헌이나 사료들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더욱 자명한 일이다.

한 중국학계의 표현을 빌린다면 “중국이 조선이라는 속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청나라 말기의 중국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사건”<sup>10)</sup>이기 때문에 근대중국사회에는 위의 양계초처럼 직접 한국에 관한 저술을 남기는 외에도 맥켄지(Fredrick Arthur McKenzie)나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ths)<sup>11)</sup>와 같은 외국인에 의해 쓰여진 한국관계저서들도 번역 출판하

9) 李始榮，『感時漫語』，서울：一潮閣，1983，서문 참조.

10) 張存武，『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下，1989，459쪽.

11) 에컨대 멕킨지의 Tragedy of Korea는 『韓國三十年史』라는 제목으로 청나라 외무부 주관으로 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하는 『外交報』 제273~300쪽에 연재되었고, 그리피스의 Korea: The hermit nation은 『各國略韓史』라는 제목으로 번

여 한국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근대중국에서의 한국관계저서들은 대개 본격적인 학문연구의 결과가 아니었던 사정은 1911년 이후의 중화민국시기에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근대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회활동가인 黃炎培는 1920년대 말 일제 식민통치하의 한반도를 여행한 뒤 『朝鮮』이라는 여행을 출판하였는데<sup>12)</sup> 그 내용 속에 한국과 한민족에 잘못된 기술 심지어 편견까지 적지 않게 나타나 당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한국독립운동가 李始榮이 직접 『感時漫語』<sup>13)</sup>라는 저술을 통해 황염배의 잘못된 韓國觀을 비판하기까지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한 양국은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일제의 침략야욕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보전해야 하는 위기감 및 역사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차츰 서로 지원하고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소개와 선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서들의 연속적 출간이 바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한국독립운동관계저서는 中國國民黨軍事委員會가 간행한 『十年來朝鮮的反日運動』, 馬義의 『朝鮮革命史話』, 高赤峰의 『朝鮮革命記』, 王子毅의 『韓國』 등이 있는데, 이들 저서는 대체로 한국문제를 중국의 자주독립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였는바,<sup>14)</sup> 중전의 한국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

여 출판되었다.

12) 黃炎培, 『朝鮮』, 上海: 商務印書館, 1929.

13) 『感時漫語』의 副題가 바로 “黃炎培의 韓國史觀을 論駁함”인데 저자 이시영은 1933년 경 우연하게 황염배의 저서를 읽어보고 그 문자와 내용이 너무나 조잡하고 허황되어 직접 논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4) 1943년 1월에 중국의 한 인문에서는 “조선은 일본의 대륙침략의 발판으로서 조선의 독립이 침해당한 것이 바로 갑오전쟁의 시작이었고 나아가서 러일전쟁의 遠因이 되었으며 아울러 이번 태평양전쟁의 遠因이 되었으니 조선독립

고 할 수 있다.

한편 1920년대부터 故宮博物院에서 1836~1875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청왕조 외교문서인 『道光朝籌辦夷務始末』(80권), 『咸豐朝籌辦夷務始末』(80권), 『同治朝籌辦夷務始末』(100권) 및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44책)을 속속 영인 출판하였고 王彥威, 王亮父子가 편집한 『清季外交史料』(243권) 등 대량의 清末 외교사료들이 속속 출간되면서 “중국의 교사의 학술혁명”<sup>15)</sup>이라고 불릴만큼 당시 근대중국외교사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에 서양에서 본격적인 학문수업을 받고 돌아온 蔣廷黻 등의 학자들과 王信忠·王荃生 등 신진학자들에 의해 근대 중한관계에 비롯한 근대중국외교사와 관련된 연구저서들이 속속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北平 國立清華大學 사학과 교수로서 아직 젊은 학도였던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費正清)의 중국관련연구를 직접 지도해준 蔣廷黻은 1933년 北平에서 발행되는 잡지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中國社會政治科學評論』) 제7권에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1870~1894』)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6)</sup> 이 논문은 주로 청일관계를 다루었지만 논자의 초점은 사실상 청일 양국의 외교적 이해충돌의 핵심이었던 한반도문제로서 중국학계에서 근대 중한관계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 重建은 마땅히 目前 중일전쟁의 歸宿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張毓麟, 『如何解決日本事件?』, 『大公報』 1943년 1월 3일), 1945년에 출판된 高赤峰의 『朝鮮革命記』에서도 역시 “일본이 한국을 병탄한 것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先聲으로서 중국의 抗戰 또한 조선의 독립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高赤峰, 『朝鮮革命記』, 商務印書館, 1959).

15) 蔣廷黻, 『清季外交史料』序, 『中國近代史論集』, 臺北: 大西洋書店, 1970, 156쪽.

16) 蔣廷黻의 이 논문은 1991년에 金基周, 金元洙 두 역자가 『淸日韓外交關係史』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서울 民族文化社에서 출판하였다.

이어서 1935년에 같은 잡지의 제19권에 발표된 林同濟(T. C. Lin)의 논문 Li Hung-chang : His Korea Policies 1870-1885(『李鴻章의 對朝鮮政策 1870-1885』)<sup>17)</sup>는 사료 사용의 경우 위 장정철의 논문과 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清末 외교사료 및 서구의 문헌까지 광범위하게 참조하면서 중한관계사의 시각에서 이홍장이 直隸總督 겸 北洋通商大臣을 맡은 1870년부터 갑신정변 이후 조선문제에 관한 中일 양국간의 ‘天津條約’이 체결된 1885년까지 약 15년 동안에 걸친 對朝鮮政策을 집중 분석하였는데 중국학계에서는 이홍장의 대조선정책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학술논문이었다. 그리고 淸화대학 사학과 출신인 王信忠이 1937년에 출간한 『甲午中日戰爭之外交背景』<sup>18)</sup>도 비록 청일전쟁의 배경 및 前史 차원에서 다루기는 하였지만 근대 중한관계사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사적 의미를 갖는다. 당시 중국 천진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大公報』의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인 王聿生은 몇 년에 걸친 신문 연재 내용을 다시 7권의 책으로 간행한 『六十年來的中國與日本』<sup>19)</sup>이라는 연대기 형식의 資料長編을 통해 1870년대부터 1919년까지 중일 외교사의 전개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그중 한반도문제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비록 한국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또한 한국 측의 문헌이나 사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였

17) T. C. Lin(林同濟), Li Hung-chang : His Korea Policies 1870-1885,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19 : 2(1935), pp.202~233.

18) 王信忠의 위 저서는 1964년 대만의 文海出版社에서 다시 영인 출판되었다. 그러나 왕신중 본인은 1949년 이후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사암에 전념하게 되어 근대의교사연구를 계속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9) 여기서 60년이라고 함은 1870년의 中日修好條規의 체결교섭으로부터 1931년의 만주사변까지 60년 동안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제7권에서는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까지만 다루었고 그후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에 들어서야 증보판과 더불어 제8권을 출판하여 1931년까지의 중일관계사를 다루었다.

지만 근대중국에서 중한관계사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이 분야의 기본 참고서로 이용되고 있다.

### 3. 1945년 이후의 연구상황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멸망과 더불어 중한양국은 다 같이 치열한 국내정치정세의 변화를 겪어보니 상대국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1945년 이후 중국에서 출판된 潘公展의 『今日之韓國』, 宋越倫의 『日韓行脚』 등 저서는 광복 후 한국에 대한 여행기 수준의 책자에 불과하였고, 반면 한국에 관한 연구저서는 한 권도 없었다. 한마디로 1945년까지 중국의 한국연구는 아직 한국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수준에 그쳤을 뿐 아직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중국대륙과 한국은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로 되었고 따라서 중국 대륙학계의 한국연구 역시 위와 같은 관계상황에 의한 사회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특히 1950년 6·25전쟁의 발발 그리고 중국의 개입에 따라 한 국문제 특히 중한관계사는 급기야 중국 대륙학계의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1951년 한해만 보더라도 周一良의 『中朝人民的友誼關係與文化交流』, 陳述의 『中朝關係一百年』, 王天心的 『齋齒相依的朝鮮與中國』, 顧家熙의 『中朝人民的戰鬪友誼』 등 여러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위의 저자들은 모두 한국의 역사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는 중국인 학자들로서 비록 1949년 이후 중국 대륙학계에서 처음으로 중한관계사의 연구 붐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으나 위의 저자들은 주로 중국 측의 기존사료를 이용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관계’를 역설

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그중 일부는 학문적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그 당시에 벌써 학계의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sup>20)</sup> 그후 1959년에 출판된 陳偉芳의 『朝鮮問題與甲午戰爭』은 청나라 외 교문서와 중국 측의 사료 및 기존 연구성과 그리고 서양학계의 연구성과까지 광범위하게 참조해 가면서 세계근대사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배경 속에서 이른바 조선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외교정책과 이해충돌과정을 깊이 분석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蔣廷黻, 王信忠 등의 연구수준을 이미 초월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중국학계에서 이 분야의 가장 훌륭한 연구서로 평가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위와 같은 특수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의해 갑작스럽게 고조되었던 한국역사 및 중한관계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붐은 결국 그 근원으로 작용하였던 6·25전쟁의 휴전과 더불어 곧바로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그후 중국학계에서 한국화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후 중국 대륙학계에서는 20년 넘게 중한관계사에 대한 어떠한 연구저서도 출판하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楊昭全의 『中朝關係史論文集』,<sup>22)</sup> 金光洙·崔鍾國의 『中朝友誼一百年』<sup>23)</sup> 등 저서들이 차츰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양소전은 중국 대륙학계에서 한국역사 특히 중한관계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저서를 출간한 연구자로서 그의 『中朝關係史論文集』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한관계사 연구의 여러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그중 孫中山, 康有爲,

20) 隋嵩森, 『錯誤百出的《中朝關係一百年》(陳述編)』, 『大公報』1952년 3월 31일; 陳述, 『關於《中朝關係一百年》的檢討』, 『大公報』1952년 6월 23일.

21) 陳偉芳 저, 權赫秀 역, 『淸日甲午戰爭과 朝鮮』, 서울: 백산자료원, 1996, '역자의 말' 참조.

22) 楊昭全, 『中朝關係史論文集』,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81.

23) 金光洙·崔鍾國, 『중조친선100년』(조선문), 연변대학출판사, 1985.

梁啟超, 魯迅 등 근대중국의 주요 역사인물들과 한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대학 교수인 金광수·최중국이 공동 편찬한 『중조친선 100년』은 근현대 중한관계사의 주요 사건들을 사회형식으로 정리하여 한글로 출판하였는데 그 성격상 학술적인 연구저서는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이미 작고한 유명한 明史 연구가 吳晗이 생전에 발췌 정리한 12책의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sup>24)</sup>가 1980년에 출판됨으로서 중국학계의 중한관계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중 『고종실록』 등은 근대 중한관계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었다.

그후 양소전은 다른 연구자들과 더불어 『中朝關係簡史』<sup>25)</sup> 『朝鮮華僑史』<sup>26)</sup> 및 『中朝邊界史』<sup>27)</sup> 『中朝關係通史』<sup>28)</sup> 등을 저술하였다. 그중 『朝鮮華僑史』에서는 비록 고대시기의 화교도 다루었지만 주로 근대시기에 한반도로 이주해 간 중국인 화교들의 역사를 정리하여 화교라는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근대 중한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고, 『中朝邊界史』는 중한관계사상 주요쟁점이 되었던 두 나라의 국경선문제 및 그와 관련된 분쟁과 교섭과정을 중국 측의 입장에서 최초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中朝關係簡史』와 『中朝關係通史』의 경우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중한관계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였지만 그중

24) 吳晗,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12冊, 北京: 中華書局, 1980.

25) 楊昭全·韓俊光, 『中朝關係簡史』, 遼寧民族出版社, 1992.

26)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1.

27) 楊昭全·孫玉梅, 『中朝邊界史』, 吉林人民出版社, 1993.

28) 『中朝關係通史』編寫組編, 『中朝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 위 책은 고대, 근대, 현대 등 4권 도합 25장, 100여 만자의 방대한 분량으로 “遠古시대부터 1994년 12월까지 中朝 두 나라 사이의 수천 년되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관계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소상하게 서술”하였는데, 그중 제24장과 제25장에서 1945년 이후 중국과 조선 및 중국과 한국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은 같은 시기 관계상황에 대한 중국학계 최초의 정리였다.

근대 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지금까지 중국학계의 연구수준과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한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중국 대학학계의 한국연구도 차츰 활기를 띠게 되었고 특히 근대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7년부터 1992년에 각각 출판된 楊昭全 등의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上·下)<sup>29)</sup>과 『東北地區朝鮮民族反日革命鬪爭資料彙編』<sup>30)</sup>에는 비록 외국에서 이미 간행된 사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었지만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국독립운동관련 사료들을 수집,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중한관계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楊昭全이 1996년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펴낸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독립운동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2년에 출판된 沐濤·孫科志의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中國』<sup>31)</sup>은 주로 중국 측의 문헌사료를 이용해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임정의 활동상을 간략하게 정리한 소책자에 불과하였지만, 바로 몇 년 뒤 1995년과 1996년 각각 출판된 石源華 등의 『韓國獨立運動與中國(1919~1945)』<sup>32)</sup> 및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sup>33)</sup>은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였고 특히 중국내 문헌사료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사료와 연구성과도 상당하게 이용하고, 심지어 한국학자들의 연구논문까지

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의 중한관계사 연구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중한관계의 발전 및 그에 따른 1992년의 공식수교는 중한관계 연구분야에서 두 나라 학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면서 중국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학계에 번역, 소개되는가 하면 중국학자들의 연구 및 저서출판 역시 한국 측의 직접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저서를 출간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북경대학의 徐萬民 교수는 한국방문 연구를 통해 근대 중한관계사에 대한 문헌사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새롭게 중한관계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96년에 19세기 6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중한관계사를 서술한 『中韓關係史(近代卷)』을 출판하였다.<sup>34)</sup> 그리고 復旦大學의 石源華 교수는 1997년에 『중국공산당과 한국독립운동관계사연구』라는 새로운 저서를 한국에서 출판하여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공산당 측과 한국독립운동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 1995년까지 杭州大學圖書館 및 한국연구소에서 공동편찬한 『韓國研究中文獻目錄(1912~1993)』<sup>35)</sup>과 『韓國研究日文獻目錄(1912~1993)』<sup>36)</sup>은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국학계 및 일문학계의 한국학 관련저서와 논문들을 총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그 내용상 오류가 적지 않은 것이 흠이었다. 1995년 崔蓮·金順자가 편찬한 『中國朝鮮學-韓國學研究文獻目錄(1949~1990)』<sup>37)</sup>은 1949년 이후 중국 대학학계의 한국학관련 연구문헌들을 정

29) 楊昭全·韓俊光 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上·下, 遼寧人民出版社, 1987.

30) 楊昭全·李鐵環 編, 『東北地區朝鮮民族反日革命鬪爭資料彙編』, 遼寧民族出版社, 1992.

31) 沐濤·孫科志,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2.

32)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1919~1945)』, 上海人民出版社, 1995.

33) 石源華 主編,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 上海人民出版社, 1996.

34) 徐萬民, 『中韓關係史(近代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

35) 杭州大學圖書館·杭州大學韓國研究所 編, 『韓國研究中文獻目錄(1912~1993)』, 杭州大學出版社, 1994.

36) 杭州大學圖書館·杭州大學韓國研究所 編, 『韓國研究日文獻目錄(1912~1993)』, 杭州大學出版社, 1994.

37) 崔蓮·金順子 編, 『中國朝鮮學-韓國學研究文獻目錄』, 北京: 中央民族大學

리한 것이다. 그밖에 서울시립대학 서울학연구소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sup>38)</sup>은 주로 근대 중한관계와 관련된 청정부 문서들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중한 두 나라 학계의 공동연구와 협력에 의해 편집 및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이미 출간된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등과 많이 중복되었다.

이처럼 중국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는 최근 들어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5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 붐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수준과 내용 역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연구대상과 연구범위의 설정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채택 그리고 연구사의 정리 및 한국, 일본, 구미 학계의 연구성과와 관련자료들의 활용 등 여러 면에서 아직도 상당한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연구수준 역시 중한관계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근대 중일관계사의 연구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 대륙학계가 한국과의 상호 단절된 관계상황으로 말미암아 상당기간 중한관계사를 비롯한 한국 연구분야에서 저조하였던 반면에 대만과 홍콩의 학계에서는 그동안 중한관계사 및 한국 연구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아왔다. 대만학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중한관계의 사료에 대한 정리가 돋보였는데, 1972년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에서 편찬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권에는 청나라 總理各國事務衙門 및 外務部의 외교문서 중 한국 및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청왕조 말기 對韓國關係에 관한 “가장 가치있는 第一手史

出版社, 1995.

3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淸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 北京: 國際文化交流出版社, 1997.

料”<sup>39)</sup>로 평가되고 있다. 그후 趙中孚, 張存武, 胡春惠 등의 편집으로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 해당하는 中華民國國史館에서 출간한 『近代中韓關係史料彙編』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1권이나 되었는데 그중 『申報』, 『民國日報』, 『大公報』, 『東方雜誌』 등 근대 중국의 주요신문잡지에서 한국관련기사들을 정리, 수록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한관계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역시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편찬한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sup>40)</sup> 및 중국국민정부의 요인으로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업무에 직접 참여하였던 蕭錕이 사비로 진행하였다는 『中國協助韓國光復運動史料』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국내 한국독립운동단체들과 당시 중국국민정부 사이의 관계 및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사에 관한 중요한 증언자료들이었다. 1974년에 출간한 胡春惠의 『韓國獨立運動在中國』<sup>41)</sup>이 바로 위와 같은 중국 측 문헌자료와 증언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국내의 한국독립운동상황 특히 중국국민정부 및 국민당과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세력의 관계와 심도 있게 연구한 대표작으로서 훗날 한국학계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 출판된 林明德의 『袁世凱與朝鮮』<sup>42)</sup>은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에 주재하면서 청나라의 對朝鮮政策을 직접 실행하였던 원세개와 당시 조선왕조의 관계를 국내의 문헌사료를 널리 이용하여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필독해야 할 中文著作”으로 되어 있고,<sup>43)</sup> 1979년에 출간된 張存武의 『淸韓宗藩賀

39) 張存武,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下冊, 462쪽.

4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同 연구소, 1988.

41) 胡春惠, 『韓國獨立運動在中國』, 中華民國史料研究所, 1974.

42) 林明德, 『袁世凱與朝鮮』,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0.



易(1637~1894)』<sup>44)</sup>은 청나라와 조선왕조 사이에 2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이른바 조공무역의 경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단연 이 분야의 고전적 연구로 되어 있다. 그밖에도 陳國亭의 『中日韓百年大事記』<sup>45)</sup>는 중국, 일본, 한국의 근대사를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서였고, 黃寬重의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sup>46)</sup>은 근대이래 중국학계의 한국관계 연구서 240종과 논문 1,004편을 수록하여 대만학계를 비롯한 중국학계의 한국학 연구성과를 총정리하였다. 또한 1983년에 출간된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의 『中韓關係史國際討論會論文集』<sup>47)</sup>은 한국학계와 공동으로 개최된 중한관계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으로서 중한 양국을 비롯한 각국 학자들의 중한관계사 논문을 수록하였고 1988년에 출판된 張存武의 『清代中韓關係論文集』<sup>48)</sup>에서도 국경문제를 비롯한 근대 중한관계사 관련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대륙에서 출판된 黃枝連의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sup>49)</sup>는 비록 중한관계만을 전문 연구한 저서는 아니지만 그가 제창한 ‘天朝禮治體系’의 주요 모델케이스가 바로 중국왕조와 한반도의 관계였다. 그중 상권에 해당하는 『亞洲的華夏秩序：中國與亞洲國家關係形態論』에서는 주로 중국역사에서 北魏 孝文帝와 조선왕조의 ‘禮義世界’를 다루었고, 중권에 해당하는 『東亞

- 43) 張存武,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下冊, 462쪽.  
 44) 張存武, 『清韓宗藩貿易(1637~1894)』,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9.  
 45) 陳國亭, 『中日韓百年大事記』, 中華叢書編審委員會, 1970.  
 46) 黃寬重,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 中央圖書館漢學研究中心, 1987.  
 47) 中華民國韓國學研究會, 『中韓關係史國際討論會論文集』, 同 학회, 1983.  
 48) 張存武, 『清代中韓關係史論文集』,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8.  
 49) 黃枝連, 『亞洲的華夏秩序：中國與亞洲國家關係形態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 위와 같음, 1994; 『朝鮮的儒化情境結構：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 위와 같음, 1994.

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對朝鮮半島關係形態論』에서는 오로지 고려왕조 말기 및 조선왕조 시기의 한국과 중국 명왕조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하권에 해당하는 『朝鮮的儒化情境結構：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에서도 역시 조선왕조와 청왕조의 관계를 다루어 사실상 중한관계에 대한 통사적이고 거시적인 연구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위 연구에서 저자는 자신이 1960년대부터 미국 하버드 대학과 싱가포르의 南洋大學(현재의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수학 및 연구과정에서 접착하였고 또한 그후의 연구과정에서 계속 다루어 왔던 이른바 ‘미국식명화(Pax Americana)’와 ‘대동아공영권(Pax Japanea)’ 문제에서 제시를 얻어 國際關係形態研究의 시각과 방법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지역질서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피력하였다. 물론 그가 제시한 기본개념과 이론체계 및 연구방법과 결론은 아직 국내의 학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한관계사에 대한 중국학자의 거시적 이론의 제시라는 점에서 거시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이 분야의 연구에 분명 유익한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만의 여러 대학에서 修學 또는 연구를 해 온 한국인 연구자들이 대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들은 비록 중국학계의 연구는 아니었지만 대만에서 중국인 학자들의 지도를 받고 주로 중국 측 자료와 문헌을 충분히 활용하여 얻은 연구성과를 중국어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대만 등 중국학계의 관련연구에 나름대로 一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자들이 훗날 한국학계에서 한중관계 분야의 주요 연구자들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논문으로는 金臺赫의 臺灣大學 석사학위논문 「朝鮮開國與清日外交之研究」, 辛勝夏의 대만대학 석사학위논문 「甲午前中國朝野對朝鮮問題的看法」,<sup>50)</sup> 金達中的 「韓國流移民之研究：1860~1910」, 陸銀均

의 대만대학 박사학위논문 『晚清中韓關係之研究—以興宣大院君與清廷的關係爲中心』 등이 있는데, 그중 신승하의 논문은 1894년 이전 청나라 관원 및 사대부들의 韓國觀을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도 크게 참고가 되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근대에 중한 양국은 모두 서양열강의 침략에 의한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 근대화의 진통을 겪어왔고 양국관계 역시 위와 같은 근대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러한 변화는 반드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때는 오히려 보다 밀접한 실질적 관계로까지 발전하여 양국관계가 중한 두 나라 근대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당시 중국 청양조의 경우 1840~1842년의 아편전쟁 이후 老 大한 봉건제국으로서의 국력과 榮華가 날로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왕조에 대한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조선의 내정, 외교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면서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치관을 제공하며 당시 중국의 최고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 각국에 유학한 엘리트 관료들을 조선정부의 고문으로 파견하는 등, 한 마디로 근대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청나라는 그만큼 한반도문제 및 對朝鮮關係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문제는 비록 근대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더라도

도 분명 당시 중국 청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역시 적어도 1894~1895년의 청일전쟁 이전까지의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은 한중관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처럼 한때 전통시대보다 더욱 강화되기까지 한 근대 중한관계는 결국 청일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근대적 조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관계로 탈바꿈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변화과정이 바로 근대 중한관계사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중한 두 나라의 전통관계가 수천 년만에 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향후 중한 두 나라 국가관계 발전의 기본틀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점에서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중한관계사의 통사적 고찰을 위한 학술적 의미에서는 물론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한 두 나라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중국학계의 경우 지금까지 근대 중한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근대 중일관계 등 관련분야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부진상황이 바로 향후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로 될 수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상황에 비추어 필자는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시각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는 마땅히 중국과 한국의 兩者的 關係 (the bilateral relationship)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대이래 중한관계 자체가 서세동점에 따른 동아시아 각국이 세계지분주의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본이었고 또한 중한관

50) 신승하의 위 논문은 1973년에 『淸季中國朝野의 조선문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史學談』(단국대학교 사학파) 제7권에 발표되었다.

계의 특성상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새삼스럽게 兩者의 관계 중심의 연구를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중한관계 연구가 늘 청일전쟁의 前史 또는 근대 중일관계 나아가서 동북아국제관계의 주변적 내용으로만 취급되는 연구경향이 지금까지 실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두 나라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에서 아무리 제3국의 외교정책 및 주변의 국제체제와 질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수밖에 없으며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의 변화발전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양국의 국가이익과 그에 따른 외교적 선택과 결정 및 행동이며 그러한 양국관계의 전개과정 역시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련요소들과 운행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독자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조약관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사시기이기도 한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에서 양자적 관계중심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잘못된 연구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이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연구새라고 생각된다.

둘째,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는 마땅히 미대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근대사는 한결같이 서양자본주의세력 및 일본의 침략에 시달리던 수난과 고통의 역사였으며 따라서 양국관계가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조약관계로 전환하는 과정 역시 평화적이고 친선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근대시기의 중한관계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자국의 역사적 지위와 체면 및 민족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는 두 나라 학계의 연구자 및 양국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반드시 부딪쳐

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시기를 비롯한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본이 중한 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엄청난 외교적 사회적 충돌과 대결 사태를 야기시켰던 前例를 감안할 때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결코 단순한 학계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한 두 나라 학계의 시각적 차이와 분쟁이 엄연히 존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 張存武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獨立復國 후의 한국학자들은 독립자주를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근대서방의 국제법 관념으로 옛날 역사를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관련연구저서들에서도 무의식간에 당시 東方의 封貢宗藩體制를 강조하고 있다.”<sup>51)</sup> 이처럼 서로 다른 역사인식의 상호이해와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문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근대 중한관계사처럼 기본사실과 전개과정에 대한 사실적 고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연구는 마땅히 양국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는 마땅히 기존의 역사적 서술방법 외에도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연구를 비롯한 인문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요즘에 유독 중한관계사 연구에서만 친편일률적으로 전통적인 역사서술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의 부진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근대 중한관계사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연구범위의 정립 등 이론적 작업과 기초적인 자료와 목록의 편찬 그리고 외교사 연구, 경제사 연구, 사회

51) 張存武,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下冊, 467쪽.

사 연구, 문화사 연구 등 인근 학문과의 교류와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근대 중한관계사의 경우 크게는 정치학의 하위체계인 국제관계 분야 중 역사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중한 근대외교사 연구와 전통적 역사학 연구분야 중 중한 양국의 근대역사(주로 정치사) 연구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야의 내용이 처음부터 섞여 있는 일종의 學際的(interdisciplinary) 연구분야로서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위와 같은 복합적 내용에 부합되는 학제적 연구방법의 모색과 강구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중한 양국의 교류협력이 여러 분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세계 각국 학계 사이의 자료교환과 연구역력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 역시 그에 필요한 중한 양국의 문헌자료와 선행 연구성과는 물론 일본 등 관련국가의 문헌자료와 선행 연구성과까지 널리 섭렵하고 참조함으로써, 한두 가지 제한된 문자로 기록된 단편적 자료와 문헌만을 이용하는 협소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중국학자가 살펴본 조선왕조 대중국인식의 변화과정

— 陳尙勝 외, 『朝鮮王朝(1392~1910)對華觀的演變 :  
「朝天錄」和「燕行錄」初探』을 읽고서 —

조선왕조 조공사신들의 使行기록인 『燕行錄』에 관한 중국학계의 관심은 일찍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3년 중국학자 金毓黻은 만주지역문헌을 수록한 『遼海叢書』에 柳得恭의 『灤陽錄』 2권과 『燕臺再遊錄』 1권을 수록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중국의 事跡을 기록한 책으로서 이해관계의 편견이 섞이지 않아 자못 진실하다”고 평가하였다.<sup>1)</sup> 그후 반세기여 지난 1978년부터 대만의 珪庭出版社에서 명나라 시기 사행기록인 『朝天錄』 26종을 양장본 4책으로 영인 출간하였다. 한편 일부 중국학자들도 『燕行錄』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사 및 한중관계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대만학자 張存武의 청나라 시기 한중문화교류에 관한 연구<sup>2)</sup> 및 중국인민대학 교수 王政

1) “爲異國人紀中朝事迹之書，不參利害之見，頗能得眞，故可貴也。” 金毓黻編，『遼海叢書』第5冊，瀋陽：遼瀋書社，1985年，影印本，3640쪽.

2) 대만의 珪庭出版社에서 1978년부터 『中韓關係史料輯要』라는 이름으로 明清 시기 중국사정에 관한 조선왕조의 『朝天錄』, 『同文集考』 등 관련문헌들을 속속 영인 출간하고 있다.

3) 張存武, 『清代中國對朝鮮文化的影響』,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臺灣

堯의 『燕行錄』 및 청나라 회국문화연구<sup>4)</sup>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온 『燕行錄』 연구와 달리 1999년에 출간된 山東大學 역사문화학원 陳尙勝 교수 외, 『朝鮮王朝(1392~1910)對華觀的演變: 『朝天錄』和『燕行錄』初探』(이하 『朝鮮王朝對華觀』으로 약칭함)은 명나라 시기의 『朝天錄』과 청나라 시기의 『燕行錄』을 모두 포함한 『燕行錄』 전체에 대한 중국학계 최초의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진상승 교수가 부주임으로 있는 산동대학 한국연구중심에서 편집한 ‘한국학연구총서’의 하나로 출간된 위 『朝鮮王朝對華觀』의 제목을 굳이 한국독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풀이해 본다면 대략 ‘朝天錄’과 ‘燕行錄’을 통해 초보적으로 살펴본 조선왕조 대중국인식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序論, ‘上編 朝天錄’初探과 ‘下編 燕行錄’初探 및 後論과 附錄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 모두 363페이지에 총 30만 자로, 연구서로서는 꽤 되는 분량이 있다.

내용의 소개와 논평에 앞서 위 책의 대표저자인 陳尙勝 교수의 경력 및 주요 연구실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山東大學 역사문화학원 교수로 있는 진상승은 1981년에 安徽大學 사학과를 졸업한 뒤 곧이어 1984년 山東大學 사학과 석사과정 그리고 2001년 山東大學 사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여 역사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산동대학 中國關係史研究所 소장, 한국학연구중심 부주임 및 중국 朝鮮史研究會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58년생으로 아직 50세 미만의 그는 명청시기 중국 대외관계사분야의 전문가로서 1993년부터 『閉關與開放: 中國

封建晚期對外關係研究』<sup>6)</sup>, 『中國古代對外關係史』(共著)<sup>7)</sup>, 『懷夷與抑商: 明代海洋力量與衰研究』<sup>8)</sup>, 『中國海外交通史』(共著)<sup>9)</sup> 등의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특히 한중관계사와 관련하여 이미 『中韓關係史論』<sup>10)</sup>, 『中韓交流三千年』<sup>11)</sup> 등의 연구서를 출간하면서 중국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분야에서 중진학자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서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은 위 『朝鮮王朝對華觀』은 진상승 교수의 지도하에 산동대학과 사학과 대학원생 10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저서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진상승 교수 개인의 단독연구서가 아니다. 그리고 『朝鮮王朝對華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또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으로부터 『燕行錄選集』<sup>12)</sup> 및 대만의 珪庭出版社 간행 『朝天錄』 등 기본자료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된 결과물인데,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는 1992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중국학계의 한국학관련 연구서가 상당부분 한국 측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대체로 위와 같은 공동작업의 결과물로 출간되고 있는 사실은 그만큼 중국학계의 한국학연구가 아직 개인적인 전문연구의 바탕이 크게 부족하고 따라서 외부의 자금 및 자료의 지원이나 협조가 없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을 정도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 책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목차의 내용을 일부 토

6) 陳尙勝, 『閉關與開放: 中國封建晚期對外關係研究』,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3.

7) 陳尙勝의 공저, 『中國古代對外關係史』,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3.

1997.

8) 陳尙勝의 공저, 『中國海外交通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7.

9) 陳尙勝, 『中韓關係史論』, 濟南: 齊魯書社, 1997.

10)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北京: 中華書局, 1997.

11)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北京: 中華書局, 1997.

12) 『燕行錄選集』上·下, 서울: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60~1962.

商務印書館, 1987.

4) 王政堯, 『燕行錄初探』, 『清史研究』(中國) 1997年 3期; 王政堯, 『略論燕行錄與清代戲劇文化』,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7年 3期.

5) 陳尙勝等著, 『朝鮮王朝(1392~1910)對華觀的演變: 『朝天錄』和『燕行錄』初探』,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9.

서만 제외한 채 중국어 원문 그대로 다음과 같이 옮겨둔다.

- 序論：頻繁한 往來, 珍貴한 記錄—「朝天錄」과 「燕行錄」概述  
 上編：「朝天錄」初探  
 權近：『奉使錄』  
 權棧：『朝天錄』  
 許筠：『朝天記』  
 趙憲：『朝天日記』  
 李睟光：『朝天錄』  
 李恒福：『朝天日乘』과 『朝天記聞』  
 李廷龜：『朝天錄』  
 金尙憲：『朝天錄』  
 下編：「燕行錄」初探  
 李瀆：『燕途紀行』  
 閔鎮遠：『燕行錄』  
 李宜顯：『燕行雜識』  
 洪大容：『滄軒燕記』  
 李士甲：『燕行紀事』  
 朴趾源：『熱河日記』  
 柳得恭：『燕臺再遊錄』  
 李基憲：『燕行錄』  
 金景善：『燕轅直指』  
 後論：事大論—華夷論—北學論  
 —朝鮮王朝對華觀變動述初探  
 附錄：大報壇과 民情之際의 中朝關係

위와 같은 내용 중 상편의 ‘朝天錄」初探’은 명나라 시기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왕조 조공사신 9명이 남긴 10종의 使行기록에 대한 약

간의 논평을 곁들인 해제 성격의 소개였고, 하편의 ‘燕行錄」初探’ 역시 청나라 시기 중국을 다녀간 조선왕조 조공사신 9인이 남긴 9종의 사행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불과하였다. 다만 간략한 해제 성격의 소개과정에서 당시 중국사회 실상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름대로 한중관계사의 시각에서 위와 같은 사행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한 노력이 엿보인다.

결국 『朝鮮王朝對華觀』의 가장 독창적 연구내용은 진상승 교수가 직접 집필한 서론과 후론 부분에서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37페이지나 되는 서론 부분에서 저자는 주로 한국학자 全海宗의 『中韓關係史論集』<sup>13)</sup> 및 중국학자 楊昭全 등의 『中朝關係簡史』<sup>14)</sup> 등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명청시기 중한 두 나라의 조공관계사실을 살펴본 뒤 『朝天錄』, 『燕行錄』 및 『漂梅錄』으로 대표되는 朝貢使行관련 기록의 저술, 간행상황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특히 조선왕조 조공사신들에 의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기록된 당시 중국사회의 실상에 관한 내용의 중요성을 중국사연구의 입장에서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그는 명나라를 방문한 조선왕조 사신들이 남긴 『朝天錄』의 경우 사료적 가치에서 오히려 청나라를 방문한 조선왕조 사신들이 남긴 『燕行錄』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물론 그 평가기준은 여전히 사료적 면에서 중국의 명청시대 역사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朝天錄』의 경우 특히 명나라 前期에 중국을 방문한 조선왕조 사신들은 전통적인 ‘事大觀’의 구속에 의해 오로지 도시성과 및 궁궐의 웅대하고 장려함과 군사역량의 강대함 그리고 인물과 재산의 풍부함 등 명나라의 좋은 면만 부각하면서 조공사행과 관련된 기행 성격의 서정적 詩文만 남겼을 뿐 명나라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깊이

13) 全海宗, 『中韓關係史論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14) 楊昭全·韓俊光, 『中朝關係簡史』,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있는 관할과 기록이 크게 부족하였다. 반면에 『燕行錄』의 경우 청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지리, 물산, 문화, 풍속습관 및 대외관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세하고 풍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청나라의 역사문헌에 전혀 기록되지 않거나 또는 왜곡 등 잘못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였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朝天錄』과 『燕行錄』은 중국 학계의 명칭시대 역사연구에 새로운 사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14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중한관계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특히 명청교체를 거치면서 조선왕조의 대중국인식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그러한 대중국인식의 변화에서 나타난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집단체험의 所産으로서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누적된 이미지가 하나의 정형된 관념으로 정착될 경우 그것을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상명히 오랜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역사기록과 역사교육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전승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외교관계를 비롯한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법이지만 또한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른바 자기실현성을 갖고 있다.

필자의 과문 탓이 아니라면 한국학계의 경우 한국인의 대미인식 및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서가 일찍 출간되었지만<sup>15)</sup>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관련 전문연구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학계의 경우 상호인식의 시각에서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시도가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시

15) 유영익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양국 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1998.

각되었는데 그것도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중국인의 일본인식을 다룬 연구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sup>16)</sup> 그러한 의미에서 진상승 교수의 위와 같은 작업은 무엇보다도 문제의식 면에서 중국의 대외관계사 연구 특히 한국학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려 10종에 달하는 『朝天錄』과 『燕行錄』을 명칭시대의 재반양상에 대한 관찰 및 인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례로 살펴본 뒤 진상승 교수는 총 30페이지에 달하는 후론 부분에서 조선왕조 대중국인식의 단계적 변화과정 및 그 내용을 자세 히 분석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조선왕조의 사신들이 남긴 『朝天錄』과 『燕行錄』을 통해 당시 조선 왕조의 대중국인식에 나름대로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바로 중국의 명나라를 정치적으로 尊奉하고 문화적으로 모방하던 것으로부터 중국의 청나라를 걸음으로 여전히 尊奉하지만 속으로는 적대시하고 심지어 문화적으로 청나라를 멸시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마지막에는 일부 인사들이 청나라의 문화적 우세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청나라의 문화를 따라 배우고 흡수하고 주장해 나선 것이다. 조선왕조 대중국인식의 이렇적 바탕은 결국 표준적인 儒學문화였는데 구체적으로 초기의 事大論으로부터 華夷論 나아가서 北學論으로 차례로 변화한 것이다.

명나라에 대한 조선왕조의 사대론 및 초기 청나라에 대한 화이론은

16) 徐冰主編, 『中國人的日本認識』,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2003年 4月 第1版; 中國社會科學院研究會編, 『中國與日本的他者認識—中日學者的共同探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年 3月 第1版. 줄지 『19세기 말 한중관계사 연구—이홍장의 조선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백산자료원, 2000)의 경우 비록 상호인식과 외교관계의 시각에서 이홍장의 조선정책을 다루었지만 그 자체가 중국의 조선인식에 대한 전문연구는 아니었다.

결국 모두 하나의 春秋義理觀에서 비롯된 것인데, 바로 명나라를 ‘華’로 칭나라를 ‘夷’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명나라를 높이 받들고 칭나라를 폐척하는 尊明排清의 대중국인식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성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춘추의리관은 이미 조선왕조의 대외관계이론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른바 事大論과 尊王攘夷論에 관한 당시 조선왕조 사대부들의 구체적 논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무엇보다도 명분과 형식을 따지면서 외래문화의 내용에 대한 감수성은 오히려 날로 뒤떨어져 갔는데 그 결과 문화적 보수성과 정치적 폐쇄성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한편 華夷論으로부터 北學論에로의 전환은 조선왕조 대중국인식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당시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춘추의리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통적인 ‘大中華’, ‘小中華’사상의 울타리를 타파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전통적인 화이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아 결국 오랑캐를 제어하자(師夷而制夷)”는 주장을 제시하였다.<sup>17)</sup> 위와 같은 사상은 한국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漢文化圈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구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이었다. 물론 북학파의 주장이 대체로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개방적인 사상은 19세기 70년대 한국 개화사상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중국인식의 변화는 또한 조선왕조 내부 自主自強의식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17) 청나라 말기 사상이가 魏源(1794~1857)이 유명한 『海國圖志』에서 제창한 “오랑캐의 長技를 배워 오랑캐를 제어하자(師夷之長技而制夷)”는 19세기 말 중국에서 서구지향의 근대화를 최초로 공식 제안한 이론적 주장으로서 지금까지도 중국학계에서 진보적인 근대화사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찍이 18세기 조선왕조의 북학과 학자들에 의해 위와 비슷한 주장물론 그 ‘夷’의 지칭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지만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중국학계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마지막에 부록으로 실린 글은 진상승 교수의 지도로 완성된 석사학위논문 1편인데, 명칭교체를 중심으로 조선왕조 왕실에서 명나라 역대 황제들을 비밀리에 기리는 大報壇의 설치 및 변화과정을 고찰한 내용이였다. 문제의식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청나라 초기 한중 두 나라의 관계는 조화롭지 못하였고 당시 유교적인 義理觀과 華夷觀은 이미 한민족의 기본관념으로 굳어지면서 정치적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으며, 특히 대보단의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논쟁은 당시 조선왕조사회의 엄격한 등급관념 및 명분과 형식을 따지는 보수적 성향을 잘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차이, 충돌이 심지어 현실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상호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작업은 그 학문적 연구의 중요성 못지 않게 중요한 현실적 또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물론 위와 같은 훌륭한 문제의식이 인과율을 적용한 것처럼 반드시 훌륭한 연구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훌륭한 문제의식과 나름대로 중요한 여러 연구결론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朝鮮王朝對華觀』은 전문연구의 완성도 차원에서 체계적 그대론 ‘초보적인 탐구(初探)’에 그친 미흡함을 적지 않게 보여주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학계는 물론 중국학계의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가 전혀 없었던 점, 그 많은 조공사행기록 문헌 중에서 굳이 10종의 『朝天錄』과 『燕行錄』을 선정하게 된 이유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점은 위 책의 연구서적 가치를 크게 퇴색시키는 결함이 아닐 수 없었다. 조공사행 기록을 통해 조선왕조 대중국인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당시 조공사신들의 개인적

18) 권혁수, 「한중 두 나라 상호인식의 어제와 오늘」, 『역사비평』, 2004년 겨울호 참조.



배경 및 그와 관련된 조선왕조 사회의 사상사적 배경 등에 대한 고찰이 거의 병행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사실 한국어 해독능력의 부족이나 한국학계의 관련연구성과에 대한 참조가 부족한 이른바 기술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한중관계사 연구를 포함한 중국학계의 한국학연구가 여러 나라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학계와 직접 대화하는 차원에서 개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는 그 실제적 중요성에 비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19)</sup>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은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改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燕行錄』의 경우 최근년간 중국학계에서 『燕行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명칭시기 한중 두 나라의 문화교류사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두 편 완성되었는데, 하나는 2004년 5월에 통과된 중앙민족대학 廉松心 박사지도교수 黃有福의 『十八世紀中朝文化交流研究』였고 또 하나는 2005년 5월에 통과된 復旦대학교 楊雨菴 박사지도교수 周振鶴의 『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以朝鮮赴京使臣爲中心』이었다. 전자의 경우 한중 두 나라 사신의 상호 왕래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8세기 당시 문화교류의 제반 상황을 다루었는데 종전의 관련연구와 달리 조선왕조에 대한 청나라의 일방적인 문화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나라에 대한 조선왕조의 문화적 영향도 나름대로 부각시키는 노력이 돋보였다. 후자의 논문은 최근 한국 학자 林基中에 의해 편집된 총 100권의 『燕行錄全集』<sup>20)</sup> 등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16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수백 년 동안 주로 조선왕조

조공사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중 두 나라의 여러 분야에 걸친 문화적 교류사실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는데 현재까지 중국학계에서 『燕行錄』에 관한 가장 체계적이고 지세한 새로운 연구성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문적인 한국학연구가 사실상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燕行錄』에 관한 연구는 그나마 중국학계의 한국학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진척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중국의 맑시즘 역사학을 연구한 미국학자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역사적 문체는 결국 이데올로기적 문제 나아가서 사회적 존재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혁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한 중국의 역사에 관련된 문제체가 역시 끊임없이 진행될 것으로 주장하였다.<sup>21)</sup> 21세기 초인 오늘날 중국학계가 세삼스럽게 몇 백 년 전 조선왕조의 대중국인식을 되살펴보는 것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 두 나라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오늘날 중국의 내외적 발전상황이 한중관계사를 비롯한 주변국기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적 교훈을 유난히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문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은 분명 점점 더 고조될 것이며 따라서 한중관계사를 포함한 중국학계의 한국학연구 역시 나름대로 日就月將의 진전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19) 權赫秀, 「關於近代中朝關係史(1876~1910)的幾點認識」, 『中國朝鮮史研究』

第一輯, 中國朝鮮史研究會, 叢書: 社會科學出版社, 2004.

20) 林基中, 『燕行錄全集』100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21) Arif Dirlik, *Revolution and History: Origins of Marxist Historiography in China,*

1919-1937,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259,

p.268.